

행복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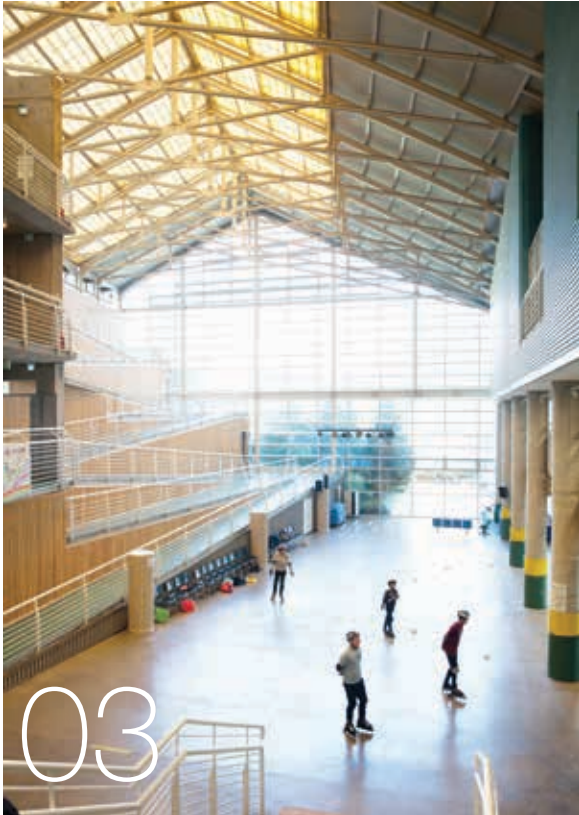
글로벌 코리아, 세계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혁신학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전국 확대

수능 15일 마지막 준비 전략





CONTENTS

VOL. 424 NOVEMBER 2017

현장 이야기

꿈이 영그는 현장 밀알학교	02
삶과 교육 지성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원장	06
이런 수업 어때요 김경범 교사의 '게임형 수업'	10
아하! 창의체험 인천신현고등학교 '국제교류 체험학습'	14
화제의 교사 백부산 영광중앙초 교사	18
학교가 즐겁다 감성을 자극하는 놀이	20

정책 이야기

기획 글로벌 코리아, 세계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대한민국 교육, 세계에 우뚝 서다	24
미리 보는 아셈 교육장관회의	26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28
해외의 벽을 허물고 세계로!	30
초점 I	32
교육부 6대 국정과제 ③	
초점 II	35
가정·학교·사회를 바꾸는 힘 '학부모교육'	
정책N전망	38
2018년도 교육부 생활밀착형 예산안	
정책 특(Talk)	42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전국 확대	
정책카툰	44
2018학년도 새 교과서 "쉽고 재미있게"	

정보 이야기

교육논단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혁신학교

혁신학교, 소통의 길을 내다

혁신학교가 미래(美來)학교가 되려면

시도교육청 플러스 특수교육 지원 사업

강원/경남/충남/대구/부산/광주/인천/전남/대전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학교폭력 대응, 미국의 무관용 정책

학급경영노트

공감능력 키워주는 학급운영의 비결(下)

아이의 다락방

애들아, 네 꿈이 뭐니?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명예기자 리포트

유럽연합(EU), 학교 내 과일 섭취 독려 프로그램 外

대학길잡이

수능 15일 마지막 준비 전략

자녀교육 Q&A

우리 아이 이중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양 이야기

이야기 인문학

학생독립운동의 날 이야기

생각나눔

“우리 동아리만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일상의 섹피

2018 동계올림픽, 가자! 강원도로 ② 정선편

뉴스브리핑

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外

행복게시판

구독신청 & 이벤트

46

48

50

54

56

58

60

61

66

68

70

72

74

78

80



COVER STORY

전남 다문화학생 예술동아리 페스티벌에 참석한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으로 다져온 기량을 무대에서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뮤지컬동아리 아이들이 백부산 교사와 함께 잔디밭에서 활짝 웃고 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밀알학교

특수학교의 재발견 주민이 오고 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애아동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장면은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을 샀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된 특수학교가 있다. 서울 강남 일원동 아파트 숲에 들어 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밀알학교(교장 최병우)가 바로 그곳이다.

평일 오후, 학교는 오고 가는 지역주민들로 북적였다. 교문 이 사라진 정문을 지나자 내부를 투명하게 비추는 유리벽 건물이 쉬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1층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도예 명가의 ‘도자전’은 지역주민은 물론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 예술의 장. 이어진 제과점과 카페에는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는 이들이 자리를 매웠다.

“조용히 독서를 즐기러 왔다.”거나 “주로 약속장소로 이용한다.”는 주민들. 20년째 인근에 살고 있다는 한 토박이 주민은 “일주일에 여러 번 온다. 카페도 이용하고, 교회예배를 학교 강당에서 올리기도 한다. 특수학교라기보다는 문화공간이다.”라며 웃는다. 친구와 약속으로 이곳을 처음 찾은 이도 “특수학교라니 놀랍다. 오픈돼 있어서인지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미술관·음악홀·카페 등...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장애학생보다 비장애인이 더 많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학교 체육관은 매월 약 4,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카페와 음악홀, 미술관 등을 다녀가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지역주민과 어우러진 학교는 밀알학교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밀알학교를 지역사회의 일부라고 했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시선은 이곳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을 거세게 반대한 과거가 회자되는 걸 꺼려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의식이 성숙했다.

1997년 문을 연 밀알학교는 자폐아와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과 교육을 돕는 특수학교다. 남서울은혜교회가 중심이 돼 학교를 건축하고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면서 설립됐다. 현재는 초·중·고 각 2개 학급과 4개 전공과에서 21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특수학교는 문을 꼭 닫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하는 시설로 여겨졌어요. 특히, 자폐 아동의 경우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했지요.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014년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최병우 교장은 밀알학교 개교를 도운 초대위원이다. 당시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구청장까지 가세했다. 주민들이 나서 10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거는 등 숏한 어려움이 따랐지만, 학교가 문을 열고 주민들에게 다가서자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거듭났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로

밀알학교는 우선, 학교운동회는 물론 교내 모든 행사에 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벽 건물.
'개방형' 건축 구조는 누구나 편히 오갈 수 있도록 한다.



04



05

역주민을 초대했다. “모든 편견과 오해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문턱을 낮추려 노력했다. 인근 초·중·고등학교와 10년이 넘는 지금도 통합교육에 나서고 있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지역 아파트 부녀회 또는 지역 유선방송으로 홍보하며 발로 뚫 결과 백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자는 100여 명. 이들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지역 내 장애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밀알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표방해 왔다. 그 생각은 학교 건물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모든 교실이 복도와 연결돼 한 공간에 머물고, 사방을 넓은 유리벽으로 감싸 내부를 투명하게 비추자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개방형’ 구조는 1999년 대한민국 100대 건물로 선정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증축된 각종 시설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인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체육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장으로, 교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유·초등학교의 체육활동을 돕는다.

2주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 연중 무료로 개방하는 밀알 갤러리 외에도 420석 규모의 음악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기 음악회가 무료로 열린다. 홀 벽면은 사면이 도자기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데 전문 음악홀 못지않은 음향 효과를 자랑한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페와 제과점, 학교 도예실도 매주 월요

일에는 지역주민들의 도예 공방으로 개방하고 있다.

재능기부로 선순환 구조 만든다

지난해부터는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꾸리고 교내 판매점인 ‘꿈이 있는 가게’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장애아동과 학부모가 만든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직업교육에도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과 학생들이 배우는 카페에서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와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면 다시 재능기부를 통해 학교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다. 9월부터 틈틈이 바리스타를 배우고 있는 박영주(39) 씨는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 할 생각에 기쁘게 배운다.”며 “엄마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즐거워한다. 학교가 학부모를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사야 전공과 교사는 “10~15분 정도 꾸준히 배우고 계신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성취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도예와 바리스타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30여 명.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는 오후 3시 이후에도 밀알학교가 여전히 활기찬 이유다. 서은선 부장교사는 말한다.

“우리는 ‘불편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위한 배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복, 밀알학교를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느끼는 더 큰 행복에 크게 감사하고 있지요.”



06



07



08



09

전환교육에 효과 커... 교육공동체 만든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응을 위한 전환교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 지역 내 1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해로 사회적응훈련이 용이해졌다.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고, 맞은편에 서울삼성의료원이 있어 물리적 여건도 안성맞춤. 이로 인해 전공과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예산 편성부터 통학버스 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활동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특히 누구나 방문하면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라운딩

코스’를 만들어 교육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최 교장은 말한다.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퇴직자를 비롯한 지역 내 인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재능기부의 길을 넓히고자 하지요.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직업훈련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복합공간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04 전공과 카페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는 학부모들

05 주민들이 편히 오가는 지하 1층 카페

06 장애치료를 위한 감각통합실

07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꿈이 있는 가게’

08 지역주민을 위해 정기 공연을 여는 음악홀

09 인근 유·초등학생들의 체력 훈련을 돕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 interview |

66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지요.

99

최병우 교장은 얼마 전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사건을 접하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학교가 더 이상 장애아동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로,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밀알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인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데 전환점이 됐다. 20년 전만 해도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속에, 지역주민과 어우러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이제는 사회의 일부로, 더 이상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든 일이다.

최병우 교장



Q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된 비결이 있다면.

밀알학교는 ‘24시간 개방’을 목표로 한다. 학교 행사에 지역주민을 초대하고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특수학교 인식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한편 문화복합공간으로 구축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했다.

Q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특수학교가 더 이상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 안 된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문을 열고 소통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시설은 국가가 적극 개입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근거리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성애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원장

“유아교육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웁니다”



01

유아교육에서 교사는 스스로 교재가 되고, 교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지성애 원장. 30년 넘게 유아교육 연구와 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교육현장의 유아교육 전문가 등 후진양성에도 애써 왔다. 2년 전부터는 유치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하루하루 아이들이 선물하는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중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 속담이 있잖아요. 인간의 발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은, 또 유아교사의 그 임무와 영향력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이하 중대부속유치원) 지성에 원장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이자 2015년 이곳 부속유치원 원장으로 부임한 지성에 원장은 어느덧 유아교육 학자의 길 30여 년을 넘기고 있다. 1916년 9월 발족한 중앙유치원과 통합하면서 현재에 이른 중대부속유치원은 2016년이 바로 개원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2015년 선보인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에 선정되는 등 유치원 경영자로서도 실력을 발휘 중이다.

“2010년 이후 초·중·고에서도 융합형 인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유아교육도 그 뿌리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어요. 유아의 창의성은 곧,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에서 수학과 언어적 교육이 부각되었다면, 이제부터는 STEA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이 융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아교육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5가지 항목

중대부속유치원은 지성에 원장이 부임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 인재의 핵심역량인 창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 3세반은 아이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교육, 4세반은 사회성 교육, 5세반은 아이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인지를 강조하는 교육이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추가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앙대 다빈치SW교육원, 지역사회 기관과 MOU를 맺고 실제 유아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관련 콘텐츠를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중이다.

“이제는 유아교육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환경에 노출시켜줘야 해요. 실제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오시면 ‘우리 아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곤 하시죠. 미래학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지금 7세 어린이의 65%는 향후에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업의 생태계가 바뀌는 것은 물론, 지식의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에 따른 인재상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과거 중요시되던 IQ에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지식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NQ(Network Quotient)가 핵심역량이 되는 식이다.

지 원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육

01 _ 지난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중대부속유치원 원장으로 부임한 지성에 원장

02 _ 지 원장은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03

아 및 유아교육에 필요한 미래역량으로 5가지 항목을 꼽았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력, 사고력과 공감력, 주도적 놀이중심의 창의융합력, 협업력, 평생배움력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5가지 항목은 유아기 동안의 교육에서부터 발현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현재 중대부속유치원이 목표로 하는 유아교육의 핵심역량이 바로 이것인 셈이다.

유아기 놀이중심 교육 연구학자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저희 유치원에 벤치마킹 차 방문합니다. 저희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의 유아교육 기관들과 현재 제후를 맺고 있고요. 특히 교사들에게 강조하는 건 어린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유아의 전인발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방법의 개발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교육학자(지 원장은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로서 지 원장은 유아교육의 ‘통합적 교수방법’에 동의하는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 종교, 철학, 건축, 수학, 천체학, 물리학, 해부학 등 다방면에서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발상과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다.”는 게 그의 부가설명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아이들도 다양한 호기심으로 과학자처럼 관찰하고, 예술가처럼 음미하면서, 탐구하고 표현하며, 감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미술 따로, 과학 따로 가르치는 것보다 과학과 미술의 영역이 상호 보완하도록 가르치면 두 배 이상의 교육효과가 있지요. 3세반 아이에게 ‘사과’라는 단어를 가르칠 경우,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고, 또 먹으면서 맛의 특성을 말하게 하는 식이죠. 또 음악을 가르치면서는, 박수를 치면서, 숫자공부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요.”

‘놀이중심 교육’ 또한 유아교육 학자로서 지 원장이 늘 골몰하는 연구주제 중 하나다. 인터뷰가 있던



04



03 04 __ 지 원장은 매일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남다르고, 경이롭게 다가온다고 말한다.

05 __ 놀이중심 교육은 유아교육 학자로서 지 원장이 늘 골몰하는 연구주제다.

05

날 이른 오전, 가을별이 따스했던 중대부속유치원 놀이터에는 3세반 아이들이 모래놀이, 그네타기, 시소놀이 등 ‘바깥놀이’ 수업이 한창이었다.

“유치원 교육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랐어요. 바로 놀이를 통해서였죠. 어느 학자에 따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힘은 바로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요.”

유아들의 전인발달에 필수요소인 놀이에는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는단다. 놀이 자체가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인데다, 외부로부터 규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놀이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대안들을 찾아낸다. 이로써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력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할놀이를 즐겼던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문해력과 문장구성력이 훨씬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지 원장은 “요즘은 놀이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심리치료도 이뤄진다.”면서 “놀이중심 유아교육에서 교사가 가급적 개입하지 않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날마다 경이로움을 선물하는 아이들

지성에 원장은 이곳의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유아교육자로서 특히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고 들려줬다. 그동안 학자와 연구자의 대상자로서 유아들을 만나오긴 했지만, 이곳에서 매일 만나는 아이들은 한 아이, 한 아이가 모두 남다르고, 경이롭게 다가왔기 때문이란다.

“입학할 때는 아기 같던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6개월 후부터는 쑥쑥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랍니다. 가슴 떨리게 고맙고, 원장으로서 보람도 느껴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걸 지켜보면서 ‘아, 기라성같은 선배 유아교육자의 이론이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것이로구나! 절로 느껴지게 되지요.”

그동안 가르친 후학들이 훌륭한 유치원 교사가 되고, 행정가가 되어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공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보람이 느껴진다는 지성에 원장. 최근의 국·공립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낙후 지역, 그리고 새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되는 것은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현재 유아교육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이들 기관의 핵심역량을 끌어올리는 큰 그림의 유아교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범 교사의 '게임형 수업'

<모둠의 마블>을 통해 배우는 '내가 사는 세계'



01

<모둠의 마블> 게임형 수업의 가장 큰 차별화에 대해 포항제철중 김경범 교사는 역설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수업시간, 김 교사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몇몇 질문에만 응했을 뿐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형식을 교실수업으로 끌어들이는 김경범 교사의 <모둠의 마블> 게임의 세계 속으로!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6반 4교시 사회과 수업시간. 이제 막 학생들의 게임이 시작됐다. 게임명은 <모듬의 마블>. 2013년 모바일시장에 선보였던 넷마블 N2 사의 보드게임 <모듬의 마블>에서 착안한 것이다.

<모듬의 마블> 게임이 시작되면서 1학년 6반 교실 안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2인 1조의 학생이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 교실 안이 떠들썩해진 건 당연지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김충원 학생이 주사위를 굴렸다. 나온 숫자만큼 이동하여 도착한 도시는 모스크바. 같은 조인 이동혁 학생과 함께 상대방이 1분을 재는 동안, 모스크바에 관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제한시간 안에 문제의 답을 찾아내면, 모스크바 땅은 두 학생의 차지가 된다.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게임 기회는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러시아가 다양한 표준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충원과 동혁 두 학생은 교과서와 사회과부도를 열심히 뒤적이며 정답을 찾느라 분주하다. 45초의 시간이 경과할 무렵, 충원 학생이 “여기 찾았다.”를 외치며 빠르게 정답을 적어나갔다. 답안지에는 “영토가 넓기 때문에 경도의 차이가 많이 나서”라고 적었다.



02

‘내가 사는 세계’에서 정답을 찾아라!

이 게임형 수업을 시작하면서 김경범 교사는 학생들에게 “게임의 답은 ‘내가 사는 세계’ 단원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다. 이어 김 교사는 “다음 수업시간에는 오늘 찾은 정답이 맞는지, 재점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번 게임형 수업의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지리정보의 위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리정보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배우고, 또한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 차시에서 정답을 확인한 후에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도시 문제를 모듬원기리 토의하면서 문제해결 능력도 끌어올리게 된다. 이때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게임인 만큼 약간의 경쟁심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무엇보다 긴장감 있는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김 교사



03

- 01 <모듬의 마블> 게임 진행 중,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과부도를 열심히 뒤적이는 아이들
- 02 김경범 교사는 ‘놀면서 배울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게임형 수업을 도입했다.
- 03 김 교사가 자체 개발한 모듬의 마블 게임



- 04 학생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 주요 국가, 주요 도시의 지리적 정보, 수리적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05 태국의 연평균 기온이 항상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 학생이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적고 있다.



는 “이 게임형 수업을 통해서서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모둠원끼리 경쟁하는 가운데 서로 협동하는 공동체 역량 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고 소개했다.

<모듬의 마블> 게임에는 어려운 문제풀이만 있는 건 아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킬 만한 게임의 요소들이 보드의 주요 길목마다 배치됐다. 이를테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보너스게임’도 그 중 하나다. 친구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3번 연속 이기면, 친구의 땅 중 하나를 빼앗아 올 수도 있다. 또 다른 땅에 도착하면, 문제풀이 없이 ‘지금 즉시 세계여행으로 이동’이라는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다.

“신나게 놀면서 배울 수는 없을까?”

이 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김경범 교사는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졸지 않는 수업을 꿈꾸었다고 한다. 또 사회교과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성취 능력을 설문조사한 결과, ‘흥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이유가 무엇보다 명료했다. 이들 학생들에게서 나온 가장 높은 응답은 ‘내용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단순 암기과목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때 김 교사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바로 게임이었다.

“신나게 놀면서 배움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하다 보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학습에 접목시켜 보자는 새로운 수업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게임에서 오는 ‘재미’의 요소를 분석하여 자기주도적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김 교사는 수업운영 결과, 이 수업모형의 한계점도 분명 존재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모듬의 마블> 게임방식은?

준비물 : 교과서, 필기도구, 주사위, 스톱워치(주사위와 스톱워치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임방법

- 출발지에서 시작하여 한 플레이어가 총 10번을 돌아갈 때까지 가장 많은 도시, 땅을 획득하면 이기는 게임(출발지 경우 횡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2인 1조가 되어 반드시 교과서를 덮고 주사위를 굴려 주인이 없는 땅에 도착 시 1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면 땅을 획득할 수 있다.
- 1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주인이 없는 땅이 되고, 정답을 기록한 후에는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
- 친구의 땅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땅을 임의로 빼앗아 올 수 없고, 다음 턴까지 그냥 기다려야 한다.

기타

라인독점 : 한 줄에 있는 모든 도시 및 섬을 먼저 독점할 경우 게임이 종료되고 승리하게 된다.



흥미도, 평가기준 모호성, 다양한 문항 개발 등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변화를 시도해 나갈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진행된 게임형 수업은 한 차시에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업이기도 하다. 정답 확인과 토의, 동료평가와 교사평가 등의 과정이 모두 진행되려면 한 단원에 보름 이상씩 소요되기도 한다고. 또 게임의 형식상 모든 단원에 적용할 수도 없었다. 각 단원의 학업성취도 기준을 분석, 게임의 형식을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 단원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과정 중심의 정성적 평가방식이다 보니 시간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평가에서 학생들과의 사이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았죠. 앞으로 이와 같은 수업이 활성화되고, 시행착오가 보완된 수업방식이 개발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게임형 수업이 다른 교실수업과 차별화되는 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교사가 단순한 지식전달자의 역할만 맡는다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이기긴 어렵다는 게 김경범 교사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수업방식을 좇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가다 보니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아예 없거나, 한 시간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학생이 존재하고, 또 알아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힘들었던 학생들도 이제는 스스로 손을 들 수 있게 됐죠.”

처음 수업모형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잘 할까?’ 우려와 걱정도 많았다는 김경범 교사. 그러나 이젠 그가 지도하게 될 모든 사회교과 단원에 이 게임형 수업을 적용시킬 수 있는 도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⑤



01

인천신현고등학교 ‘국제교류 체험학습’ “나라 밖 아이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리더를 꿈꿔요”

인천국제공항, 청라국제도시,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인천항 등 수많은 글로벌 허브가 집약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국제교류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성을 뒷받침하듯 인천에는 특별한 국제교류 체험학습으로 눈길을 끄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인천신현고등학교(교장 이덕범)다.



02

- 01 공자학당에서 중국 전통 매듭 체험 활동을 하는 학생들
- 02 중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교내 공자학당
- 03 주한중국대사관이 수여한 국제교류 감사패와 자매결연 학교로부터 받은 기념품들

내실 있는 국제교류 체험학습

인천 최초의 자율형 공립고로 지난 2008년도에 개교한 인천신현고등학교는 ‘감동 교육, 더불어 행복한 학교’ 실현을 목표로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천신현고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제2외국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체험학습이다. 인천신현고는 학생들의 진로 탐구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교육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인천영어마을, 인천외국어수련부, 인천대 공자학원과 같은 국내 기관을 비롯하여 중국 톈진시 제3중학교, 일본 와카바고등학교, 하와이 주립대학교, 일본 국제문화교류재단 등의 해외 협력으로 체험활동을 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 있다.



03

국제교류 체험학습으로 꿈을 키워요!



김혜원 / 2학년, 중국어 집중반

“저는 통역사를 꿈꾸고 있어요. 예전부터 중국과 중국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어 집중반’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어를 심화 학습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이 다양했어요. 우리 학교의 국제교류 체험학습은 제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김보연 / 2학년, 중국어 집중반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언니가 인천신현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저희 언니도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했는데, 그때 홈스테이 활동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어 집중반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언니처럼 홈스테이 활동도 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체험을 하면서 중국 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통상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어요.”





05



06



07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문화의 다양성

현재 학교와 교류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 톈진시 제3중학교, 일본 와카바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의 학교를 방문하며 특별한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이때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가정에서 홈스테이 활동을 하며 현지의 문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익히게 된다. 홈스테이 활동은 국제교류 체험학습 중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활동이기도 하다. 또한, 양국 학생들은 언어적 장벽이 비교적 낮은 미술, 음악, 체육 교과목을 공동으로 수업하며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고 있으며, 유적탐방, 역사교육, 전통문화체험 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익히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인천시교육청과 중국 톈진 교육위원회의 공동 지원으로 공자학당을 개설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문화 전파와 중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인 공자학당에서는 원어민 교사, 중국한어수평고시(HSK) 방과후학교, 각종 중국문화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영선 교감선생님의 국제교류 체험학습 운영 노하우 **Tip**

운영의 합리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탐색이나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진행 절차는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체 평가

매번 기존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없애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05 06 07 _ 중국·미국·일본 교육문화 체험
- 08 _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이끌고 있는 일본어·중국어 교사들
- 09 _ 국제교류 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는 국제교류관에 전시·보관된다.
- 10 _ 국제교류관에 전시된 기념품 및 기념사진들
- 11 _ 책으로 엮은 탐방활동 자료집과 소논문
- 12 _ 일본어를 배우는 전용교실



08



09



10



11



12

공평한 기회로 자존감을 높이다

인천신현고의 국제교류 체험학습이 처음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던 것은 아니었다. 2008년부터 6년간은 문화체험 중심의 미국 탐방, 2014년부터 2년간은 하와이 주립대와의 양해각서(MOU)를 통한 과제연수가 동계 방학 기간에 운영되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는 운영방식이 제한적이었으며,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에 학교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다. 국제교류 체험학습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면서 일어난 변화는 비단 운영 측면에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의 변화는 기대 이상이었다.

최영선 교감은 “학교는 수평적인 기준과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학생의 역량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라면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니 아이들의 자존감과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백부산 영광중앙초 교사

다문화 학생 꿈 응원하는 ‘슈퍼맨’ 선생님

문화예술의 힘은 위대하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백부산 영광중앙초 교사가 이끄는 ‘락뮤’ 뮤지컬 동아리와 인연을 맺으면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락뮤’는 영광 지역의 다문화·일반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초·중·고 연계의 뮤지컬 동아리이다. 33명의 학생 중 40% 가량이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채워졌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조차 누가 다문화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학생에게 건네는 한마디 “너를 위한 자리란다”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다문화 아이의 물음에 백부산 교사는 “너를 위한 자리”라고 말한다.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데려왔다는 이야기도 해줘요. 주눅 들지 말고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라고요. 잘 따라오는 아이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다음기회에 비중있는 역할을 주어 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도 열어주고 있어요.”

‘락뮤’는 배우가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하는 여느 뮤지컬 동아리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다. 연기팀과 연주팀을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로부터 연기와 보컬을 배우고 있다. 백부산 교사는 이곳에서 총감독을 맡아 3년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전남 다문화학생 예술동아리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작품을 연기하며 백 교사의 자작곡 13곡을 완벽하게 선보였다. 지도에 없는, 위성 상에서만 보이는 쓰레기섬. 그 쓰레기를 먹는 해양생물과 해양생물을 먹는 인간의 관계를 뮤지컬로 표현하면서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락뮤는 올해 장성을 필두로 목포, 전북 임실을 거쳐, 순천, 영광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무대 위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 그저 뮤지컬로 하나가 될 뿐이다.

준비된 교사의 음악을 향한 화려한 외출

백부산 교사는 영광중앙초의 음악전담교사이면서 학생합창단, 밴드, 오케스트라를 진두진휘하는 ‘슈퍼맨’ 선생님이기도 통한다. 방과후에는 영광중앙초 학생들에게 노래와 악기를, 토요일에는 하루 온종일 뮤지컬 동아리를 지도하며 열정을 쏟기 때문이다.

백부산 교사는 음악에 빠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대학생이었다. 음악이 좋아, 아이들이 좋아 다니던 명문대를 떠나 교대로 편입했다고 한다. “13년 전 제가 교직에 입문했던 시기가 막





01 __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해오고 있는 백부산 교사

02 03 __ 전국 119 소방 동요 경연대회에 참석한 영광중앙초 합창단

04 __ 백 교사가 지도하는 뮤지컬 동아리 '락뮤'의 공연 리허설 모습

문화예술교육이 싹트던 시기였어요. 첫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친 것이 시초였죠.”

학교에서 학생 교습용으로 구입한 기타 10대를 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하였는데, 덜컥 아이들이 동아리대회에서 입상했다. 음악적 재능이 많은 그를 동료들은 ‘준비된 교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가는 학교마다 합창단, 밴드, 오케스트라를 도맡아 지도해 오고 있다. 전남 지역의 7개의 지역교육청이 연합해 추진하는 전남 다문화학생 예술동아리 페스티벌도 백 교사의 소문을 들은 도교육청 담당자의 요청으로 인연을 맺어 총감독을 맡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미련이 남아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외에도 백부산 교사는 매년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선상무지개학교’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남지역 중2학생 200명이 참여하고 교사 40여 명이 이끄는 ‘선상무지개학교’는 제주, 일본, 중국 일대를 돌며 ‘평화’와 ‘공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선생님들이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감성을 자극하는 놀이 “우리는 통했어!”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11월이 되면 학년을 마무리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지내면서 많은 부분을 서로 알게 되고 친분도 두터워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 놀이는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을 알아보아요

- ① 교사는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7-8개의 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숫자를 쓸 수 있도록 작은 칸을 만들어 놓습니다.(놀이는 6-8명 규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그리고 공통 주제를 던져서 그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을 7가지 적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도 좋고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도 좋습니다.
 - 1) 올해 우리 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2)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 인물은?
 - 3) 한국 음식하면 생각나는 것은?
- ③ 공통 주제에 대해서 7가지를 작성하면 놀이가 시작됩니다. 1번 학생이 자신이 적은 첫 번째 답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역사적 인물'이었고 1번 학생이 처음으로 적은 대답이 '이순신'이라면 대답 중에 이순신이라고 적은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대답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 ④ 그러면 자신을 제외한 친구들이 몇 명 손을 들었는지 수를 세고 옆의 칸에 적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 친구도 자신이 적은 첫 번째 답안을 읽습니다. 만약 2번 친구도 이순신이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마지막 친구의 7번째 대답이 끝날 때까지 수를 적고 그 수를 더해 가장 높은 수를 얻은 친구가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 놀이는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이 적은 대답을 읽을 때 다른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인 만큼 가을을 주제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더욱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과 동일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을 날, 감성이 젖어드는 이 계절에 학생들과 이 놀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②



칭찬 사워 놀이

놀이 방법

- ① 종이에 자기가 듣고 싶은 칭찬을 3가지 적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칭찬의 종류는 외모, 능력, 성격 등 다양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 ②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대로 칭찬을 두 번씩 해줍니다.
- ③ 상대방이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맞으면 내가 적은 카드를 전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제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칭찬카드를 모은 친구가 승리하게 됩니다.
- ④ 칭찬 왕을 교실 가운데에 세우고 주변 친구들이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큰 박수를 치고 합성을 질러 축하를 해주며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놀이 효과

큰 준비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1년 동안 지낸 친구지만 칭찬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칭찬을 알아보고 칭찬을 해주는 것은 서로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없던 친구들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코리아, 세계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제6차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가 오는 11월 21~22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 협의체로, 올해는 아셈 교육협력 10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면서 동시에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유럽 교육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시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이번 장관회의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다음 10년을 위한 교육협력’을 주제로 청년고용과 인적교류라는 두 가지 의제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장관들이 경험한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여기서는 세계교육의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짚어보고 미리 살펴보는 아셈 교육장관회의의 의제를 비롯해 친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해외의 벽을 허물고 해외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기 등을 소개한다.

01

대한민국 교육, 세계에 우뚝 서다

02

미리 보는 아셈 교육장관회의

GLOBAL KOREA

03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04

해외의 벽을 허물고 세계로!



대한민국 교육, 세계에 우뚝 서다



글. 서순식 춘천교대 교수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온라인 서비스는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개인 간의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 주는데, 특정 관심이나 각계각층의 문제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이미 국경마저 초월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으로 인해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우리 교육 잠재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교육 분야는 농수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건강, 과학기술, 위기 대응 등 그 어떤 분야와도 협력의 상승효과를 모색할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인력 개발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통분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에는 교육을 통한 변혁이 집약되어 있다. 현 국제사회는 우리의 교육 잠재력 및 그 실제적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해왔다.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혁신 사업,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 등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확대한 좋은 사례이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

또한 다자간 교육 협력에서도 우리의 활약은 돋보였다. 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교육장관회의, 2015 세계교육포럼 등을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7 아셈 교육장관회의의 개최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2015 세계교육포럼에는 회원국의 장·차관 106명을 포함하여 152개국 정부 대표단과 유네스코, 세계은행, 유니세프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하였는데, 2030년까지 새로운 교육의제를 수립한 교육 2030 인천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2016년 APEC 교육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회의 참석차 페루에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지구촌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국제적 감각, 소양,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는 자신이 처한 지금 여기에서부터 더 올바르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실천적 소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24시간이 넘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도 쉽 없이 다음 일정을 계획하는 담당자를 목도한 적이 있다. 또한 다자 간 국제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교육 관련 현안을 함께 숙고하면서 지속가능한 교육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담보로 헌신하는 우리 측 관계자를 접한 적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각고의 노력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나라 교육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임을 인정하며 그들의 수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 수요는 향후에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 관련 국제협력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외교 리더십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효과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교육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교육 관련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국내 교육현장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적 교육경쟁력 강화 등이 그 전략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위에 국제적 역량 키우자

여러 대륙의 다양한 나라에서 교육협력에 동참하였던 필자는 각 나라의 학생, 교원, 교육 행정가들이 우리나라를 따뜻한 이웃으로, 성공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선진 국가로 간주함을 매년 깨닫곤 하였다.

향후에도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후학들을 위해 감히 조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국제적 감각, 소양,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는 자신이 처한 지금 여기에서부터 더 올바르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실천적 소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및 교육적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교육적 형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함께 조망하고 해결해보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모범 국가의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가야 하는 소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⑦





미리 보는 아셈 교육장관회의 “아시아와 유럽의 다음 10년을 위한 교육협력”

글. 오응석 교육부 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팀장



제6차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ASEM은 아시아-유럽 회의(Asia-Europe Meeting)의 줄임말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 협의체이다.

96년 태국 방콕에서 ASEM 정상회의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ASEM은 세계 인구의 약 60%, 총생산(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을 포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간 협의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의 수도 아시아 21개국, 유럽 30개국으로 총 51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사무국과 유럽연합(EU)위원회도 양 지역을 대표하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장관회의의 주된 의제 ‘청년고용’과 ‘인적교류’

ASEM 교육장관회의는 2008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ASEM 정상회의에 더하여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장관회의가 개최되는데, 각 장관회의의 출범 시기는 상이하다. 따라서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는 햇수로 10년째에 열리는 교육장관회의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 교육부는 ASEM 교육협력 10년을 맞는 이 중요한 시점을 계기로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유럽 교육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걸맞게 이번 장관회의의 주제도 “아시아와 유럽의 다음 10년을 위한 교육협력 - 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천까지”로 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부 장관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우선, 세계 각국의 최우선 관심사항인 청년고용 증진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직업세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삶을 대비하고 청년들의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ASEM 협력의 원동력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활발한 사람들 간의 교류이다. 활발한 인적교류야말로 서로의 문화, 언어, 역사, 제도가 다른 지역 간 교류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은 인적교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교류는 취업이나 이민 등을 통한 교류보다 더 개방의 문이 넓기도 하거니와, 교육은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학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그 나라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이번 아셈 교육장관회의에서는
청년고용 증진과 인적교류라는 두 가지
커다란 의제를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의
장관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장관회의에서는 청년고용과 인적교류라는 두 가지 커다란 의제를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의 장관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미래 아셈 교육협력 10년의 비전 담은 '서울선언'

한국 교육부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두 가지의 커다란 제안을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게 제시했다. 하나는 “서울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이니셔티브”이다. “서울선언”은 미래 ASEM 교육협력 10년의 비전을 담게 될 ASEM

교육협력 내 최초의 장관선언문이다. 선언문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안하도록 처음부터 계획되었으며, 현재 ASEM 회원국들과 “서울선언 초안작성위원회”를 꾸려 공동 작업 중에 있다. 앞으로 ASEM 교육협력 현장 곳곳에서 “서울선언”이 인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크(MOOC) 이니셔티브”는 국제 교육협력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는 한국의 제안이다.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 공동의 “무크 강좌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대학의 온라인 강의와 외국 우수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하나의 강좌로 묶어서 한국의 학생과 외국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동일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무크(MOOC)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거대한 지역 간 결합을 시도하는 것은 최초의 실험임과 동시에 크게 기대가 되는 구체적 협력 방안이다. 온라인 교육 분야의 발전이 날로 두드러지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무크(MOOC) 이니셔티브”가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협력 발전을 진일보시키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아셈 교육장관회의, 하나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

11월에 개최되는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는 하나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 10년간 아시아-유럽 교육협력의 결실을 거두는 자리가 됨과 동시에,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그 첫 씨앗을 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열심히 일구고 있는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라는 텃밭 위에 아시아와 유럽 교육협력의 미래 비전이 빛을 발하길 기대해 본다. ㉞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학교육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국제장학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 인적교류를 통해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듀오-코리아 장학 사업은 한국과 유럽의 30개 아셈(ASEM) 회원국 대학생 간 1대1 교류 프로그램으로, 2001년 아셈듀오 사무국 설립 이후 지난 16년간 아시아와 유럽 학생 및 교직원 3400여 명의 교류를 지원해 아시아와 유럽 간 균형적인 인적 교류 활성화와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도 듀오-코리아 장학 사업을 통해 100명의 대학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한 학기 동안 대학에서 수학하며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였다.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제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이다.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의 우수 이공계 대학생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공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이공계 2-4학년 대학생을 초청하여 5주간 전공 강의를 비롯하여 실험실습, 산업시찰,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도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 사업, 외국인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사업, 주요국가 학생 초청 연수, 한·일이공계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은 한국의 우수한 대학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듀오-코리아 장학 사업_수기

“11개월의 한국생활, 한국어·문화 더 배우고 싶다”

글_ Jūlija Platpīre 라트비아 대학교(아시아 연구) 학생

저는 원래 한 학기만 교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에서의 생활과 공부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교류 기간을 연장하여 11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셈-듀오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런 뜻 깊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더없이 감사합니다.

2016년 가을학기 부산대학교에서 저는 6개의 수업(동아시아지역의 국제 규범, 문화 분석론, 한국 문화의 이해,





- 01 __ 경주유적답사
- 02 __ 부산대의 문화와 음악을 경험한 축제
- 03 __ 소양어린이집 봉사활동

기초 한국어, 비즈니스 영어, 한국의 전통과 예술)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저의 전공인 아시아 연구에 있어 한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과수업 외에도 현장견학, 대학축제, 컨퍼런스 참여, 토론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한국 대학 축제는 라트비아와 달리 규모도 크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축제로 즐긴다는 점에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방문했고, 이는 단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며 실질적인 깨달음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교환학생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교류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고 갈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공부한다면,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교류 동안 잊지 못할 추억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명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목표가 생겼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학사학위 수료 후 한국에서 석사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저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며 저의 미래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



03



해외의 벽을 허물고 세계로!_ WEST 수기

“미국 인턴십과 여행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

글. 이현주 CV 15기

2015년 2월, 눈보라가 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3년 안에 다시 오자.’라고 다짐했던 내가 1년도 채 안된 약 5개월 만에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WEST였다. 졸업을 1학기 앞둔 상태였지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막막한 상태였고, WEST 지원서에도 부끄럽지만 ‘나를 찾아가는 기회로 삼겠다.’고도 적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생활은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USDA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부와 주를 연결 짓는 감사팀으로, 매년 27개 주의 검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고기가 수출·입되는 한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제 검역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미국 전역의 리콜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 여기서 내 역할은 매년 바뀌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각종 크고 작은 미팅들의 자료를 만드는 등의 일을 한다. 1년 가까이 같이 일하면서 때로는 가족, 때로는 친구가 되어 준 팀원들로 인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Work ; ‘Real America’를 경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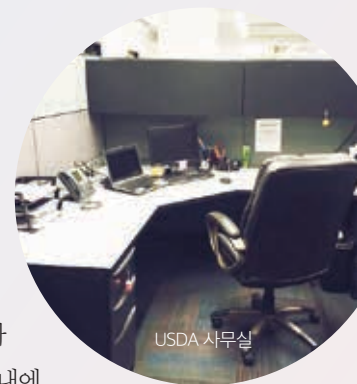
나는 경제와 행정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조합의 복수전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무 쪽으로 일할 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이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스폰서 회사인 Cultural Vistas에도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터뷰 기회를 위해서 여러 정보를 찾아 수집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인터뷰 모두 USDA와 이루어졌고, 마침내 오마하의 USDA,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산하의 FSAB(Federal State Audit Branch)에서 일하게 되었다.

USDA는 미국 내 국방부 다음으로 큰 부로서 DC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전역에 여러 에이전시 및 오피스들을 두고 있다. 동시에 WEST프로그램과는 10년 넘게 인턴이 파견된 곳인 만큼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다. 그 중 우리 팀은 중앙정

부 업무 환경을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데 외국 회사들은 자유로운 분위기가더라, 업무시간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더라 등 업무 환경에 대해 많이들 묻곤 한다. 이에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롭다.’이다. 무엇보다 재택근무와 근무시간선택제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다. 나는 여러 옵션들 중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고 매주 특정 요일에 쉬는 옵션을 선택해서 주4 일제를 유지 중인데 이로 인해 여행의 폭이 넓어지고, 매주 하루 더 긴 주말을 누릴 수 있었다.

‘English ‘Study ; 아는 것이 힘!

DC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어학연수를 시작하기 전 반배치고사와 같은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을 배정받게 된다. 웨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수업 이후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따로 있다. 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인턴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회사 내에



USDA 사무실



서 전화, 이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턴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했다.

오마하에서 살기 좋은 한 가지는 회사 길 건너에 바로 공립 도서관이 있는 것이었다. 회사 바로 앞

에 있으니 퇴근하고 잠깐 들러 책을 읽거나 빌리는 게 용이했다. 더욱이 요즘에는 공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E-book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가기 전이나 공휴일 같은 날에는 E-book으로 책을 빌려서 읽곤 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 읽는 데 꽤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 권씩 완독하고 모르는 단어들을 적어놓은 리스트를 보면 그보다 뿌듯할 수가 없다.

동양인을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룸메이트도 모두 미국인이고, 회사 내에도, 길거리에도 동양인을 찾아보기 힘든 오마하는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영어실력도 물론이지만 그들의 문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Travel ;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디딤들

WEST의 약자 'T'가 의미하는 것처럼 WEST프로그램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여행이다. 미국에 오래 머물면서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곳들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흔히 우리가 '미국'하면 떠올리는 곳, 뉴욕의 타임스

한미대학생 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란 대학생들에게 미국 어학연수 및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퀘어, 시카고의 시카고 리버를 따라 늘어선 빌딩숲, 마이애미의 야자수 가득한 해변, 보스턴의 하버드, MIT와 같은 명문대 캠퍼스들, 이 풍경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한다.

여행은 활력소이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들이었다. 홀로 떠난 뉴욕 여행에서의 다짐이 현재 미국생활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난 여행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내가 나아가는데 또 다른 디딤들이 될 것이다. 지난 어학연수와 인턴생활 중 틈틈이 캐나다를 포함한 11개의 도시를 여행했다.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느꼈던 설렘과 여행하면서 마주한 많은 사람들과 풍경들, 여행 후에도 한동안 가시지 않는 여운들은 20대의 추억으로 자리할 것 같다.

만약 누군가 내게 WEST에 대해 묻는다면, 내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여행 등 충분히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답하고 싶다. ②



교육부 6대 국정과제 ③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키웁니다”

교육부 6대 국정과제 3회 시리즈 중 마지막회를 소개합니다.

- 국정과제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정과제2.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국정과제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국정과제4.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국정과제5.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국정과제6.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6대 국정과제를 세우고, 세부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교육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등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스팀(STEAM) 교육을 통한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혁신 선도대학 운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산업인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 핵심교원을 육성하고, 교원양성대학의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SW)교육 연구·선도학교의 성과를 점검하여 우수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감형 콘텐츠 도입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 등 콘텐츠 질을 제고하고, 지능형 학습 분석 서비스의 제공과 무선 인프라 설치 확대를 통해 미래형 학교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스팀(STEAM) 연구·선도학교 및 교사 연구회

의 확대와 제4차 산업혁명 선도혁신대학 내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방법 혁신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충원하고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비교과교사(상담·보건 등)를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 맞춤형 교육, 학생참여중심수업 등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 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학교환경 개선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개축 등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18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석면교체는 ’27년까지 내진보강은 ’34년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찜통 땀띠교실 해소를 위한 노후 냉난방기·창호교체 및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필칠판 교체 사업 등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는 “가고 싶고 놀고 싶은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지역교육청, 아동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설치된 도

박시설(화상경마장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 조치를 마련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매 3년마다 15시간 이상)를 이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의 자기보호 능력 배양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도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확대(18학년도 초3~6학년, 연간 4시간 이상)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어머니회, 돌봄 안전인력, 배움터 지킴이, 학교 보안관, 수학여행 안전요원 등 학생 보호인력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육부는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여 202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교과용도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여 학교교육과 교실수업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발행제 도입 기반 조성, 교과서 제도 개선 포럼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20년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민주주의 회복

교육부는 교육민주주의와 교육 현장의 신뢰·자율성 회복을 위해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운영 개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운영을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단계적 지방 이양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을 추진합니다.

원사업 간 연계를 폐지하고, 장기 총장 공석 상황의 조속한 해소를 추진한다. 사학의 공공성·책무성 확보를 위해 사학혁신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사학제도 개선방안 및 조사·감사를 포함한 사학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2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위원 위촉 등을 거쳐 11월 중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질을 한층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국가교육회의에서의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부는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유·초·중등교육의 단계적 이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우선 현장 체감도가 높은 3대 과제(국가시책사업 개편,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 운영·평가 자율화)를 즉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교육자치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단계적 지방 이양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의 경쟁

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단위학교 자치 강화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한다.

먼저,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강화 및 학생중심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부모·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선정·보급을 통한 다양한 자치활동 모델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의 여섯 번째 실천과제인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교육 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시·도 정책협의회’, ‘권역별 고등교육정책 설명회’ 등 교사·학생·교육청 간 현장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정책 발굴·실행·환류 등 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실명제(이력관리 등)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한다. ②

가정·학교·사회를 바꾸는 힘 ‘학부모교육’



01



02

01 이재명 칭찬문화연구소장이 '자녀를 춤추게 하는 행복한 부모 되기'를 주제로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02 학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 방문해 심화교육을 받고 있다.

10월 17일 오전,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강의실이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칭찬문화연구소 이재명 소장의 '자녀를 춤추게 하는 행복한 부모 되기'를 주제로 한 학부모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원인,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방법, 자녀의 긍정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방법 등을 화두로 진술한 강의가 이어졌다. '칭찬의 힘'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대구에 사는 오대희(49) 씨는 "한때 자녀와의 소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화법 강이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과거의 아버지상과 오늘날의 아버지상이 많이 다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의식과 행동을 극복하고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부모교육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자녀와 대화할 때는 '바라봐라', '기다려라',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강사의 말을 떠올리며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칭찬' 한마디씩을 건넬 생각이다.

대구,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에 초점

2010년부터 학부모교육 체계를 만들고 자녀 성장 단계별, 학교 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펼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8종의 <자녀교육서>를 개발, 제작하여 학부모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석환 부교육감은 "대구 학부모교육은 학교와 학부모와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내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450여 명의 부모교육 전문가를 활용해 연10회(2시간씩 총20시간)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 학부모교육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서 한발 나아가 부모의 건전한 교육관을 정립하고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월별 주제

- 03 대구 학부모교육의 성과는 교육청(센터)-단위학교-학부모가 함께 일궈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사진 맨 오른쪽이 방경곤 대구 학부모역량개발센터 소장
- 04 강원도교육청 '토론큐칭과정'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
- 05 06 전북교육청 학부모 동아리 '놀이밥퍼'에서 놀잇길을 만들고 있다.



별 심화 프로그램을 구축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81곳 기관의 1,943명이 학부모교육을 받았다. 또 역할극, 소통코칭 등 자녀와의 소통부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득형, 실천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부모 상담과 맞춤형 코칭이 이뤄지는 '가족행복카페'는 학습부진, 게임, 소통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지난해 대구 학부모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3만여 명. 대구 학부모 중 34%가 연평균 3.4회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모든 학부모교육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다양한 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통계청의 2016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이 9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서울대에서 3년간(14~16)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건강/주관적 행복감/아동의 관계/물질적 상황/위험과 안전/교육/주거환경/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에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여준다, 2016년에는 8개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학업중단율(0.57%)과 정서행동관심군 비율(1.8%)은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방경곤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장은 "학부모교육으로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모역할에서부터 진로진학문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며 "학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학부모의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모성장학교’ 운영으로 학부모 동아리 활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부모성장학교’를 통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유·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놀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 양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부모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부모에게는 수료증을 주고 있다. 특히 학부모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재능기부 등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 후 놀이학교(놀잇길 만들기)를 비롯해 ‘어우렁이’



교육부는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교육과 참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05



06

(학부모 동아리)와 놀이밥퍼는 주2회(4시간씩)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에서 전래놀이를 지도한다.

또한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심화교육이 눈길을 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을 통해 엄마선생님을 양성하고 있다. ‘학습친구 엄마 쌤’은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학습지도하는 방법에서부터 자존감을 심어주는 방법을 교육하며, 사교육 없이 가정에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학습법’도 교육하고 있다. ‘초록식물 가드너교육’은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안으로서 환경호르몬 제거 식물심기, 페트병을 활용한 공기정화용 심지화분 만들기,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다육식물 테라리움 만들기 등 친환경교육으로 구성되어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학부모 주도의 찾아가는 강원토론학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강원학교토론’ 교육을 학부모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교육청 주도의 다양한 학부모 토론교육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이 재능기부에 적극적인 뜻을 보이며 학부모와 사서교사를 비경쟁토론 지도사로 양성하는 ‘토론코칭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에 남의 생각을 더하고 더 나은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들이 현재 ‘찾아가는 강원토론학교’를 활발하게 이끌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교육과 참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열’이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㉞

2018년도 교육부 생활밀착형 예산안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예산 확대

글. 채홍준 교육부 예산담당관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전체 모습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68조 1,88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부문은 4조 4,262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증가율은 10.6%로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다.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총지출 증가추이(정부안) :

(15) 1.3%(+0.7조) → (16) 1.1%(+0.6조) → (17) 8.6%(+4.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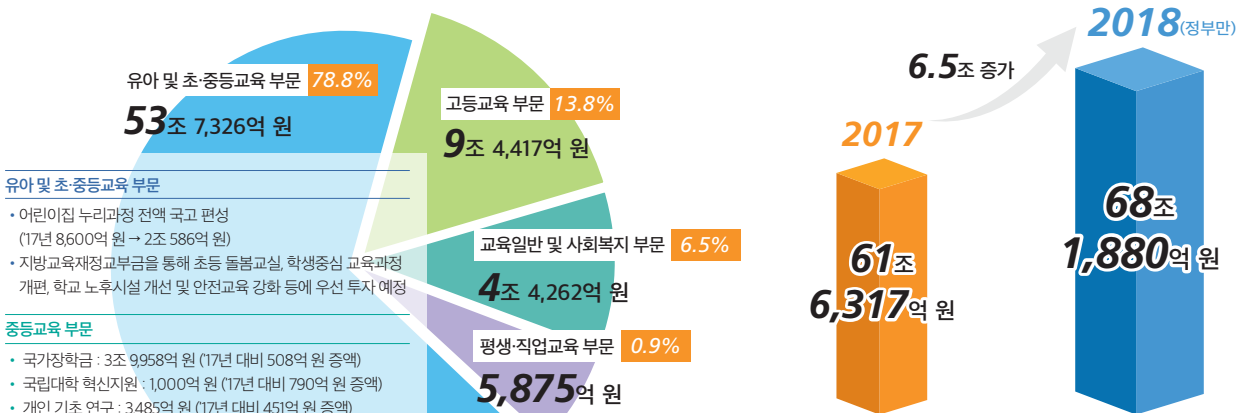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부문별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였다.

고등교육 부문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였으며,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운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을 신설하였다.

그림. 2018 교육부 예산안(정부안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17년 8,600억 원 → 2조 586억 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에 우선 투자 예정

중등교육 부문

- 국가장학금: 3조 9958억 원 (17년 대비 508억 원 증액)
- 국립대학 혁신지원: 1,000억 원 (17년 대비 790억 원 증액)
- 개인 기초 연구: 3,485억 원 (17년 대비 451억 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부문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신규): 54억 원
-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신규): 13억 원
-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신규): 32억 원
- 한국형 나노디그리(신규): 26억 원

*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예산안(정부안 기준)

2017년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 증액한 68조 1,880억 원으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특징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학생·학부모를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정부는 만3~5세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부터는 중앙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2조 586억 원) 국고로 지원하여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저소득층 학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급(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추가)하는 교육급여는 지원 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대폭 인상(연간 초등학생 41,200원→116,000원, 중학생 95,300원→162,000원)된다. 수혜를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잠재력 있는 소외계층 영재 육성

잠재력이 있음에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외계층 학생 51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맞춤형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기 중에는 멘토를 지정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체험교육, 학습지원 등)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전국 단위 리더십캠프와 진로멘토링 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2018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3조 9,958억 원으로 '17년 본예산 대비 508억 원 증액되었다. 현재는 소득분위(구간) 기초~3분위 대학생까지 등록금 절반 이상을 차등 지원(최고 520만 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4분위(구간)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1. 2018년도 원아 1인당 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유아학비	6만 원	유아학비	22만 원	보육료	29만 원
방과후과정비	5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표2. 2017년 및 20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년	'18년(안)		
초등학생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60.2% ↑)	연 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41,200원	105,000원	(154.9% ↑)	
초등학생	학용품비	0원	50,000원	(순증)	연 2회 분할지급
중·고등학생		54,100원	57,000원	(5.4% ↑)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인문사회계 우수장학금을 '인문100년장학금'으로 브랜드화하여 고교 3학년 및 대학생 1·3학년을 단계적으로 선발(2,400명)하고 인문학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체육계열 우수학생 지원강화를 위해 예술·체육비전장학금(280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하도록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10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학생에게 학기당 대학 등록금 및 장려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의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학비·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 인원은 총 3,600명으로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이 되기 전에는 학업에 몰두하게보다 생활에 집중해야 했지만, 장학생이 된 후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한 디자이너로 인정받아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꿈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을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 2016년 ○○대 졸업생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대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및 산업체에서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진로 개발을 돕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총 1,600여 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항공권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 희망자는 소속 대학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기숙사비 월 24만 원 이하(2인 1실 기준)의 저렴한 안전한 행복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생으로 저소득층학생·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의 경우 우선입사 기회(행복공공기숙사 수용인원 대비 15~30%) 및 기숙사비 지원혜택(행복공공기숙사 수용인원 3%~5%, 기숙사비 30%~50%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fpp.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2014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¹⁾) 사업은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및 인사·조직 등 대학운영체제 개선 및 대학회계의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위한 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이 강화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8년도에는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학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 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54억 원)을 신설하였다.

소외계층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5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7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기반의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한국형 나노디그리²⁾'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대학생, 구직자 및 재직자)를 위한 6개월 내외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며, 빠르면 2018년 6월부터 학습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발급하는 나노디그리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등 자체적인 재직자 훈련이 어려운 기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나노디그리 과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7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어르신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문해교육**

교육부는 지난 10여 년간 비문해 어르신들이 글을 몰라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야학, 복지관을 통해 문해교육을 지원해 왔다.

향후 5년은 문해교육 참여를 원하는 모든 비문해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좀 더 어르신 곁으로 다가가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농산어촌의 가까운 경로당, 마을회관, 정규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늘리고 단순히 글자 교육뿐만 아니라 카톡 보내기, 보이스 피싱 예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http://le.nie.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 운영**

2015년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자에게 양질의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78억 원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 인문, 사회과학, 공학 분야에 집중된 것을 기초과학, 예술 등 각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하여 학습자에게 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이트(www.kmooc.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2) 나노디그리(Nano-degree) :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미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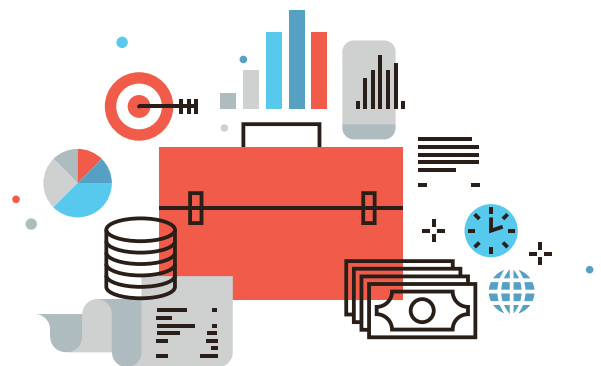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2018년에는 장애성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된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인 연수 등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토대가 마련되어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041-537-1446)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②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전국 확대

그동안 서울, 세종, 충북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에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입니다. '처음학교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실>

Q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무엇인가요?

처음학교로는 그동안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유치원 입학과정에서의 학부모의 불편과 유치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개발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이름입니다. 유치원 입학에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관리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서울, 세종, 충북에서 시범 운영해 왔으나 11월 1일부터는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2018학년도 유치원 입학 시,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정보 검색-접수-추첨-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Q 기존의 유치원 입학 시스템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우선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정원 내 법정저소득층을 100% 우선 모집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과 연계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입학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시스템 상에서 원서 접수, 추첨,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유아의 정보를 자동으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셋째, 유치원 입학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접수·등록은 인터넷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에서도 접수·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넷째, 유아모집·선발 시기에 결원이 생기는 유치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입학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입학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통해 보안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인 유치원이나 학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Q 무엇보다 유아선발과정이 공정해야 할 텐데요.

기존에는 유치원에서 직접 공을 뽑는 방식으로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는 추첨일에 교육감이 시동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유아의 주민번호와 선발기준번호를 통해 여러 단계 계산처리 과정을 거쳐 유아별 난수를 만들어 익명 처리한 후 다시 한 번 시스템 상에서 무작위 함수에 의한 추첨을 통해 선발자와 대기자 명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유아를 의도적으로 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기자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유치원 입학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국·공·사립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4,747개 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희망할 경우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처음학교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첫 해입니다. 유치원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치원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쉽게 유치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치원 소개와 유아 모집요강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유아 모집요강을 잘 파악한 후 자녀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추첨이 되었다라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한 곳에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용자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원 대상의 연수를 실시하고 대국민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포하였으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Q 자녀가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이용방법과 향후 일정을 알려주세요.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는 11월 1일입니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과 내자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자녀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후 희망 유치원의 모집요강과 절차에 따라서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어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유치원에 가시면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지원하는 유치원을 각각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긴급적 인터넷 사용이 되는 지역은 교사 업무경감 취지 차원에서 인터넷 접수를 권장드립니다. ②

표. 향후 일정

① 우선 모집	② 일반 모집	③ 추가 모집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등 우선모집 대상자) 접수 : 11.06.(월)~11.08.(수) 추첨 : 11.13.(월) 발표 및 등록 : 11.14.(화)~11.16.(수)	접수 : 11.22.(수)~11.27.(월) 추첨 및 결과 발표 : 11.29.(수)~11.30.(목) 등록 : 12.01.(금)~12.07.(목)	접수 : 12.13.(수)~12.14.(목) 추가 모집 결과 안내 : 12.15.(금)

2018학년도 새 교과서 “쉽고 재미있게”



교육논단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혁신학교



혁신학교, 소통의 길을 내다

혁신학교가 미래(美來)학교가 되려면

혁신학교, 소통의 길을 내다

글.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학교가 매우 재미있어요.”
 “여름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1도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해야 해요.”
 혁신학교에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다.
 “무엇이든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니 고민이 깊어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교사로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역시 혁신학교에 있으면서 동료 교사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자, 스스로도 많이 했던 말들이다. 경기도 혁신학교 덕양중학교는 2008년부터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은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랜 시간 애써오면서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참여’와 ‘소통’을 중심에 둔 학교 문화

학교의 모든 일은 전체 교사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수립하는 일, 연간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일, 생활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학생을 만나서 수업과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장, 교감은 교사

공동체의 1/n의 하나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구성원 중 1명의 목소리로 존중된다. 교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교장, 교감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다.

함께 결정하고 시행된 교육과정은 정기적 회의와 일상적 대화를 통해 공동의 성찰과 피드백의 시간을 갖게 된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나의 고민과 생각이 반영되었고,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성찰과 피드백의 시간은 살아있는 배움의 기회이자, 성장의 계기가 된다. 학교 바깥에서 듣는 연수와는 다른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 자율성과 민주적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된 학습조직이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연구와 실천이 일어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를 토대로 교사들은 수업과 생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존중받을 때 행복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도 가능해지고, 학교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혁신학교는 학교 안에 소통의 길을 내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활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다. 모든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다. 수업공개는 전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텍스트로 활용하기 위함이지, 수업자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전체 교사는 공유하고 있다. 수업자와 함께 수업 디자인을 고민하고, 수업 진행 과정에서의 고민을 들으며,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기 수업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배운다. 교사 공동체 안에 동료로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자, 통합 수업이나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진다. 여러 교과 교사들이 모여 학습의 목표와 수행평가의 내용을 공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수업, 프로젝트 수업이 모두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도 가능해지고, 학교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모두를 존중하는 학교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와 긴밀한 협의를 한다.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자체적인 소통의 구조를 갖고 활동하며, 각 단위의 의견은 존중된다.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규칙도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활동을 강조하여, 학급회와 학생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체육대회나 학교 축제, 학교의

각종 행사를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생활협약을 지키는 문제나, 교실 수업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학생 대의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으며 다른 학교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가져와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존중받을 때 행복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주체로서 학교 경영에 참여하고, 교장·교감을 포함해 교직원 모두가 상대방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동료로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또한,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자, 학생들이 실패와 실수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리고 학부모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공유한 학교 구성원으로 온전히 존중받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결국, 혁신학교는 학교 안에 소통의 길을 내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 땅의 모든 아이가 학교에 오는 것을 행복해하는 날을 꿈꿔 본다. ②

혁신학교가 미래(美來)학교가 되려면

글_ 오재길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혁신학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혁신학교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 규정이 다르게 된다. 지금껏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달랐다. 초기에는 혁신학교를 일종의 연구·시범학교, 또는 대안학교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만든 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혁신학교 운동 자체를 열린교육의 부활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은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학교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프레임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혁신학교를 정적 개념이자 완료형인 ‘혁신된 학교’로 보는 경우와, 동적 개념이자 진행형인 ‘혁신하는 학교’로 보는 것이다.

‘혁신된 학교’ vs ‘혁신하는 학교’

정적 개념인 ‘혁신된 학교’는 정형화된 구현체가 있는 일종의 ‘완전한 학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은 혁신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작은 부족함이나 흠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완전을 추구하는 학교는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게다가 이런 관점의 사람들은 무엇을 혁신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묻고, 방법까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혁신된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와 차별되는 혁신 프로그램을 내세운다. 대개 이런 학교에서는 ‘더하기 혁신’

만 있지 ‘빼기 혁신’이 없다. 혁신이 유쾌할 리 없다. 교사들에겐 새로운 업무가 과중되고 헉! 헉! 땀다고 하여 ‘혁신학교’가 되고 만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이식하고 또 다른 혁신학교를 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짜통 혁신학교’, ‘무늬만 혁신학교’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적 개념인 ‘혁신하는 학교’는 ‘온전한 학교’를 지향한다. 진정한 혁신학교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온전’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라는 의미이다. 그야말로 학교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다. 온전한 학교로서의 ‘혁신하는 학교’는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당연히 ‘빼기 혁신’이 가능하다. 우수 혁신학교의 사례는 모방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온전한 학교, ‘혁신하는 학교’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그 의미를 밝히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행형인 ‘혁신하는 학교’에 성과를 요구하고, 획일적인 평가지표를 들이대는 일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혁신학교는 정책으로 만든 학교가 아니다. 온전한 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갈망과 자발적인 실천으로 일궈온 학교에 대해 ‘정책적 옷’을 입힌 것이다. 특히 초기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혁신학교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

나는 혁신학교가 더욱 탄탄해지길 희망한다. 지면상 학교 교육의 요체인 ‘교육과정’으로 한정하여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책과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자 한다.

혁신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임을 인정한다면,
혁신교육은 끊임없이 혁신되어야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혁신학교는 미지의 미래(未來)학교를 넘어 아름답게
다가오는 미래(美來)학교가 될 수 있다.



먼저, 교사에게 교육과정 기획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별화 교육과정은 이미 주어진 교육과정을 학생에게 잘 맞춰 준 것이지만, 개인화 교육과정은 학생이 교육과정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행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은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도 지금껏 혁신학교에선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평가 혁신 등을 통해 교육과정 혁신을 선도해 왔다.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사의 직무가 ‘수업하는 사람’에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려면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기획권을 부여하여 학생주도형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화 교육과정은 현행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슬림화, 분권, 거버넌스 등의 의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조의 편향과 배제 없이 균형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학교는 진보주의 교육을 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혁신은 좋은 교육을 위한 수단적 의미가 강하다. 좋은 교육은 진보주의 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의 배제 또는 편향적 추구는 혁신교육을 쪼그라들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흔히들 우리 교육은 두 가지 원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원죄는 보수주의 교육(지식중심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학

생들에게 교과서 지식에 대한 반복 학습을 시켜 머리만 커지고 공부라면 질색을 하게 만든 것이다. 또 하나의 원죄는 진보주의 교육(경험중심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머리는 비고, 손과 몸만 바쁜 지적활동이 결여된 수업에 치중한 것이다. 두 가지 원죄는 보수주의 교육과 진보주의 교육의 물이해에 따른 맹목적인 추구로 인한 것이다.

해답은 분명하다. 보수주의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대로 추구하는 것이다. 얇은 기쁨을 살리고 학생의 지적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진보주의 교육 역시 ‘하는 지식’을 통해 ‘보는 지식’과 연결시키는, 삶과 얇은 통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 보수주의 교육의 반작용으로 인한 진보주의 교육의 치우침은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혁신학교의 브랜드가 되어 획일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은 곤란하다. 혁신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임을 인정한다면, 혁신교육은 끊임없이 혁신되어야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혁신학교는 미지의 미래(未來)학교를 넘어 아름답게 다가오는 미래(美來)학교가 될 수 있다. ㉞

특수교육 지원 사업



교육부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장애학생들이 편견을 넘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직업교육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특수학교·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특수교육 여건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편견 넘어 행복한 일자리 만들어요!

지적장애 3급인 김종관 학생(원주 영서고등학교)은 올해 2월 학교를 졸업하면서 'AK그룹 외식사업부'에 취업했다. 학교에서 제빵기능사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고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는 모두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복한 일자리 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 행복한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된 카페 모두는 인기가 많아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 카페도 5곳으로 늘었다. 강원도교육청 카페 모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혜란 직업지도사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자신감도 얻



고 스스로 일하는 법도 알게 돼 다른 곳에 취업도 잘 되는 편"이라며 "이런 공간이 강원도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행복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학생 138명 중 30%가 넘는 학생(4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강원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전환교육지원센터', '학교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

다. 속초청해학교기업에서 만드는 김치는 지역에서 유명해 주문량도 많다.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김태수 장학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며 "교육과 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야 슈퍼스타!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우수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끼를 마음껏 펼치는 문화예술제, 「제2회 슈퍼스타, YOU!」가 경상남도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문화예술제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일반학생 123명이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프로그램도 일반학생과 함께하는 통합동아리의 우쿨렐레 합주를 시작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들의 마림바 연주, 플룻 앙상블, 피아노 독주, 기악 합주, 합창, 난타, 치어리딩, 퍼포먼스, 댄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총 360여 명이 문화예술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야말로 어울림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그동안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칠 기회가 부족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관람을 마친 밀양교육지원청 장운익 교육장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찾아 엄청난 노력의 결실로 이 무대에 서게 된 장애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남특수대상 학생 문화예술제는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멋진 공연을 보여 준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슈퍼스타로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충청남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3교 설립을 추진하고, 특수학급 신·증설, 병원학교 확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6개의 특수학교(공립 4교, 사립 2교)가 설립되어 있으나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 학생의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수학교 3교를 추가로 설립한다. 신설되는 특수학교로 논산계룡 지역의 성광온누리학교로 2018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고 천안 지역에 설립되는 직업중점학교 꿈이룸학교(가칭)는 자체투자심사와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중이며, 내포(당진, 홍성, 예산) 지역에 종합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해 2017년 22학급을 신·증설하였다. 장애 및 만성질환 치료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을 위해 국립공주병원과 아람메디컬병원에 '병원학교'를 신·증설 하여 단국대병원을 비롯한 3개 병원에 4개 학급에서 월 평균 18명의 학생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으로 현장감 있는 직업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여 공동 운영한다.

편성된 프로그램으로는 바리스타, 도예, 제과 제빵, 사서보조, 사무보조, IT, 의류분류, 간병, 세탁, 세차, 시네마 11개 체험관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비스업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직무와 직종을 체험해볼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뉴스포츠와 수영교실, 직업평가를 운영하며



기업체의 참여로 실제 근무지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여 현장감 있는 직업 체험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체험관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과 더불어 관련 특수학교 교사, 학부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주변인의 역할을 높이는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세상 속으로 한 걸음, 꿈은 이루어진다”



부산은애학교(교장 박영순)는 2012년부터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대동대학교의 바리스타학과와 교육협약을 체결하여 직업체험프로그램인 바리스타교

육을 운영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작된 바리스타교육은 대학으로부터 물적, 인적자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직업체험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연 20회에 걸쳐 사전평가, 직업 이론 교육, 커피 이론교육 등의 기본과정과 에스프레소 추출, 라떼아트, 드립커피, 주문받기 등의 실습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1:1 맞춤형 실습교육과 함께 사회적응기술과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배양에 집중한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은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장애극복을 실천하고 장애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감각장애 학생 위한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7년 중점 사업으로 감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73명 대상 우수 졸업생과 일촌맺기, 개인진로

적성검사, 음악으로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실, 자녀교육 간담회, 시 기능 훈련, 보행 훈련, 청각재활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수 졸업생 일촌맺기’는 감각장애가 있는 재학생과 같은 꿈을 꾸고 동일한 장애를 지닌 선배가 일촌 재학생에게 긍정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촌이 된 졸업생은 재학생과 1년을 함께 소통하며 희망 분야를 안내해 꿈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월에는 감각장애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접해보기 어려운 ‘음악소통 놀이 교실, 판소리 교실, 힐링 레크리에이션, 탭댄스 클래스’를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실’을 작년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동반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학부모, 즐거운 자녀교육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가 감각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폐성학생, 문서실무사 자격증 과정 지원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부터 자폐 성장에 학생 대상 문서실무사 4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폐

성장애 학생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전국 2개 교육청 지정) 운영 내용 중 진로직업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천 관내 자폐성장애 중학생 중 한글 타자가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문서실무사 지도 전문 강사가 대상 학생의 학교로 주 1~2회 정도 방문하여 방과후에 5차시 이상 개별 지도를 한 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가 주관하는 정기 시험 일정에 맞추어 원서접수부터 응시 및 자격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제179회 시험에 3명의 자폐성장애 학생이 응시하여 3명 전원 합격이라는 기쁜 결과를 통보 받았다. 2학기에 8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특수학교지원센터 설립



전라남도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전환교육 지원을 위해 전남직업 능력개발원(함평 소재) 내에 직업 전환 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최근 직업능력개발원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가 공식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이전 개소를 목표로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담인력을 배치해 학생 관리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업능력개발원은 도내 장애학생의 84%가 발달장애임을 고려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기능을 수행할 직업체험관 및 훈련시설을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도 센터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와 22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기적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가원학교 다채로운 '감성주간' 운영

대전가원학교(교장 최영철)는 '감성주간' 운영을 통해 공연관람에 제한이 있는 장애학생들의 표현활동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음악을 듣고 조형물 만들기, 도화지에 명화 표현하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더 나아가 교직원 및 학부모 모두가 어우러



져 참여할 수 있는 재능발표회, 전시회, 학예발표회를 통하여 가원 교육가족 모두의 예술적 감성들을 표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영철 교장선생님의 인성&감성 키움 '사랑이 넘치는 행복수업'이 진행된다. 전 학급(45학급)으로 1시간씩 찾아가 교장선생님이 학생들과 여러 가지 악기로 감정을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열어간다. 이처럼 인성&감성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행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 순화에 도움을 준다. (2)



학교폭력 대응, 미국의 무관용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새롭게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학교폭력 사안에 심의와 재심 등이 빈발하는 상황이 되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민감해졌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엄격한 법과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학교와 교사가 지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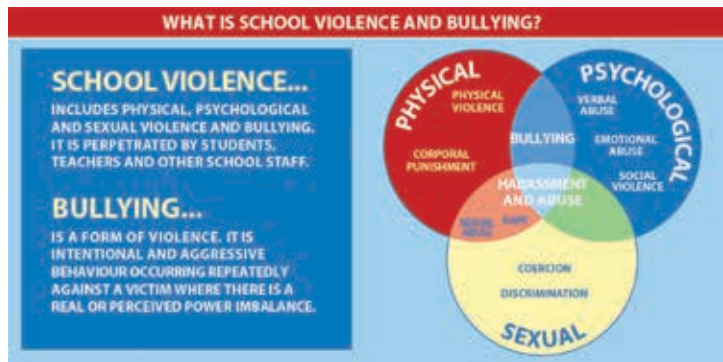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괴롭힘(왕따)은 폭력인가 아닌가?

유네스코에서 나온 자료에는 학교폭력과 괴롭힘(왕따 등으로도 사용한다.)에 대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 교사 그리고 다른 학교 직원에 의해서 범해진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 폭력과 괴롭힘이다. 괴롭힘은 폭력의 일종으로, 약자이거나 약자라고 느끼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괴롭힘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단기적으로는 우울, 불안, 분노, 과도한 스트레스,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학교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살(bullicide)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불안감, 신뢰 부족, 극도의 민감성, 정신병, 인격 장애 또는 PTSD와 같은 정신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보복을 원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대부분 왕따 피해자의 보복 심리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최소한 피해자는 자신보다 힘이 약한 대상을 가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장해서 반사회적인 격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증가하며, 가정 폭력을 포함한 범죄 행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분노, 공포, 죄책감,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동급생의 반복적인 희생을 목격한 방관자는 피해 학생과 비슷한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간과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유네스코 자료



학생들의 문제는 법적으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징계보다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가치관 주입을 위한 학교 규율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몬타나주에서 반왕따법(Anti-Bullying Act)이 반포되면서 미국 전역에 학교폭력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왕따의 정의, 왕따 예방, 왕따 실태조사, 신고 및 교육장에게의 보고의무, 조사, 학생과 학부모 통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보복금지, 왕따 방지 학교규정 게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자를 방과 후 학교에 남도록 하기, 상담, 정학, 퇴학 및 대안학교로의 전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왕따에 대한 학교규율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주마다 다르지만 골격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무관용 정책

우리나라에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무관용 정책'일 것이다. 이 정책은 1994년 미국 연방법으로 제정된 것인데, 약물 소지와 무기 소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경우이다. (무관용 정책은 예외 없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이고, 그 범위는 마약과 총기에 한정된다.) 그러나 최근 무관용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무관용이 학교폭력이나 약물 남용을 줄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학교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으로 인한 법적 처벌이 흑인과 라틴계 학생에게 집중되고 있어서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 셋째, 성인에게는 적법 절차와 법률을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 학생에게 무관용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무관용 정책에 입각하여 사소한 위반으로 학생을 퇴학시키고, 법적 제재를 가하면, 촉법 소년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교도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무관용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초기의 엄격한 무관용 정책과는 달리 실질적인 마약과 무기소지에 대한 처벌로 조정되고 있다. 학생들의 문제는 법적으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징계보다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가치관 주입을 위한 학교 규율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의 교육적 활용(경기도 교육청의 회복적 생활교육)과 같은 것이 교육적 접근의 한 예라고 하겠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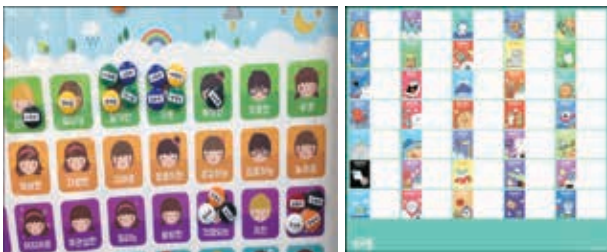
* 다음호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합니다.

공감능력 키워주는 학급운영의 비결(下)

11월입니다. 12월이나 2월은 바쁘고 마음이 쫓겨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을 챙기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11월은 이런 마음의 짐도 덜 겸 아이들에게 선생님, 친구들과의 공감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10월 학예회나 운동회 등으로 바빴던 행사도 마무리되고, 가을은 깊어져서 겨울로 내달리는 계절입니다. 농부는 그동안 애써 가꾼 곡식들을 추수하고, 자연은 마지막 제가 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활짝 피어나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이달, 학급에서도 아이들의 여문 씨앗을 거둬들이듯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교사를 위한 '공감능력 향상 4종 세트' 학급운영 기술을 소개합니다.

1. '감정 출석부'에 감정 표시하기

우리 반 아이들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칠판에 붙어있는 감정 출석부에 자기 '감정'을 표시합니다. 그런 후에 아침 인사를 시작하지요. '감정'은 몸과 마음의 다양한 마음 상태에서 유래하며 몸의 변화로 경험하고, 인지를 통한 표현으로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으로 인한 몸의 감각을 느끼고, 그 감정을 언어로 떠올리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아동의 건강한 또래 관계와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가 감정을 보지 못하고 행동을 먼저 보는 탓에 아이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안 하임. G. 기너트 박사는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수용하고 공감해 주면,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실에 '감정 출석부'를 준비해 '감정 표시하기'를 권합니다. 등교하며 아이들은 신체에 나타난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며, 표현된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출석부에 자연스럽게 '걱정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아이에게 "재모야, 오늘 표정이 어두운데 걱정되는 일이 있나 보구나.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라고 물어봐 주세요. 물론 대답하기 꺼리면 더 묻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하고 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풀리면 돌아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면 충분합니다.

2. '환영받는 의례'로서의 아침 인사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며 상담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등교는 환영의 의례가 되어야 합니다. 환영받는 존재라는 느낌, 인사를 해주는 것, 잘 왔다고 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온 것은 환영해줄 만한 일입니다.¹⁾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두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 주세요.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들일수록 좀 더 오버하며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요. 아침은 '감정과 감정이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3. 감정 단어를 활용해 아침 감정 말하기

'그래서 어찌라고?'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아이의 말은 친구를 더욱 화나게 만듭니다. 자기의 속상한 감정이나 미안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서 자꾸만 엇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위해 '초등상담나무'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정 단어를 활용해 아침 감정 말하기'입니다. '감정 출석부'와 '아침 인사'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공감 지도가 탁월합니다.

1) 김현수, [무기력의 비밀](에듀넷, 2016)

감정으로 인한 몸의 감각을 느끼고, 그 감정을 언어로 떠올리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아동의 건강한 또래 관계와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정 출석부에서 '오늘 아침 자기의 감정'을 한 가지 선택한 아이는 선생님께서 와서 인사를 하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두 손을 맞잡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감정을 말하면 됩니다.

“오늘 감정은 (속상하다)입니다.”

“속상한 일을 겪었나 보구나. 무슨 일로 그렇게 속상하니?”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속상한 걸 보니, 일부러 늦게 일어난 게 아닌데 혼나서 속상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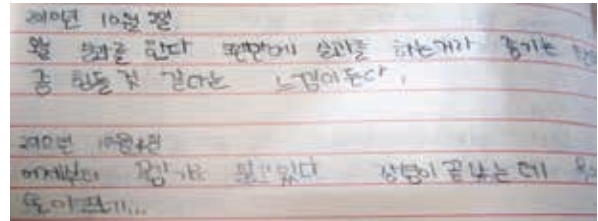
조금 익숙해지면, '감정'과 '이유'를 함께 말하도록 지도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감정은 '신나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좋아하는 체육 수업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4. '감정단어' 넣은 두줄쓰기 공책

반 아이들이 고민을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통계청 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선생님께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아이는 평균 1.4%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매일 '두 줄로 감정 출석부에 표시한 '감정 단어'를 넣어 글을 쓰도록 지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오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두줄쓰기 공책'에 날짜와 두 줄로 '감정 일기'를 씁니다. 아침 공부를 시작하기 5분 전쯤에는 우리 반 아이들의 두줄쓰기 공책을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 글을 읽어보면, 반 아이들 누가 아프고, 어느 집에 엄마가 아파 병원에서 왔다든지, 그리고 누가 사귀기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 아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감정을 들은 아이들은 대하는 것도 좀 더 배려하며 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런 이야기들로 자연스럽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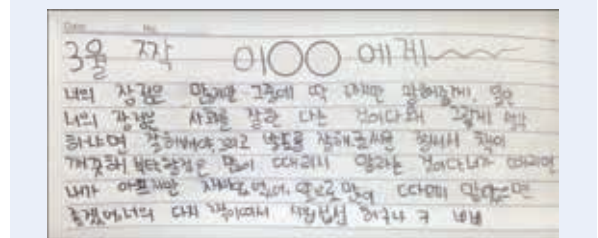


업과 연결해 발문하면 수업은 더욱 살아있고 빛이 났습니다. ㉠

매주 하루 '주제 글쓰기'

일기 쓰기를 안 하는 대신, 매주 하루를 정해 '주제 글쓰기'를 했습니다. 일 년 동안 쓸 주제 목록을 미리 인쇄해 나누어주고, 표지 안쪽에 붙이게 했습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는?', '친구들은 모르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내가 엄마의 엄마(아빠)라면?', '만약 하루가 25시간이라면, 남은 한 시간을 어디에 쓰겠는가?'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상을 펼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짝을 바꾸기 전에는 짝공과 서로의 두줄쓰기 공책을 바꿔 5분 동안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짝을 바꾸는 과정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짝 바꾸기만 한다면, 항상 짝만 바꿔달라고 조를 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짚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짝을 바꾸기 전에는 혹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더라도 짝을 지켜보며 관찰한 좋은 점 3가지와 부탁할 점 1가지를 꼽아 적어달라고 지도했습니다. 매달 꼼꼼히 챙기니, 평소에 친구와 생활하면서 '어떤 점을 적어주어야지' 생각하며 지내는 걸 느낍니다.



궁금하다
궁금해~

애들아, 네 꿈이 뭐니?

최근 십대들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이 ‘네 꿈이 뭐니?’라고 한다. 아마 젊은 이들에게 ‘결혼 안 하니?’ 하는 질문처럼 대답하기 곤란한가 보다. 우리 아이들은 꿈과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통 아이들의 보통 진로

아이들은 어릴 적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아빠 세계일주 여행을 보내드릴 거예요.’ 하거나 ‘독수리가 되어 하늘을 날아 보고 싶어요.’ 하면서 꿈을 펼친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 ‘선장이 될 거예요.’ 하거나 ‘로봇제작자가 되고 싶어요.’ 한다. 이때쯤 꿈은 직업과 같은 단어가 된다. 고등학생이 되면 ‘토목공학과가 좋을까? 건축공학과가 좋을까?’ 하면서 진로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이 쉬울까? 아니다. 어떤 식으로 꿈을 시각화시킬지도 문제고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게 문제다. 수십 명을 합격시키는데 수백 명이 몰리니 어느 집 자식인들 장담할 수 있단 말이나. 보통 아이들은 말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오면요, 일단 전교등수가 나와야 ‘인서울’할 수 있어요.” “문과에 가면 굶어 죽는대요.” “문과는 로스쿨, 이과는 공대. 이 둘을 빼면요, 작가가 되거나 라면집을 차리다가 결국 폐업해서 백수가 된대요.” 아이고, 애들아, 그렇게 생각 말고 가슴을 넓게 펴렴.

어떤 아이들은 말한다. ‘컴퓨터 관련 학과가 20개가 넘어요. 컴퓨터공학과와 전자제어계측학과는 뭐가 다르죠? 거길 나오면 뭘 해요?’ 하거나 ‘전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공군사관학교 말고 다른 데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라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이번에는 가슴을 넓게 편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필요한 정보로 머리를 채워야 할 일이다.

일부 아이들의 특별한 진로

현 제도를 벗어나서 제 나름대로 진로를 찾는 아이들도 대폭 늘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같은 구미권이나 싱가포르 또는 홍콩, 필리핀 같은 곳에 유학 가서 3년 혹은 12년 동안 외국학교에 다닌 후, 그곳에 정착하거나 국내 대학에 재외국민 자격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다. 같은 대학 같은 과의 일반전형이 50:1이면 재외국민 전형은 15:1쯤 되니 좀 수월한 셈이랄까? 그다음으로는 특목고, 전문계고, 예체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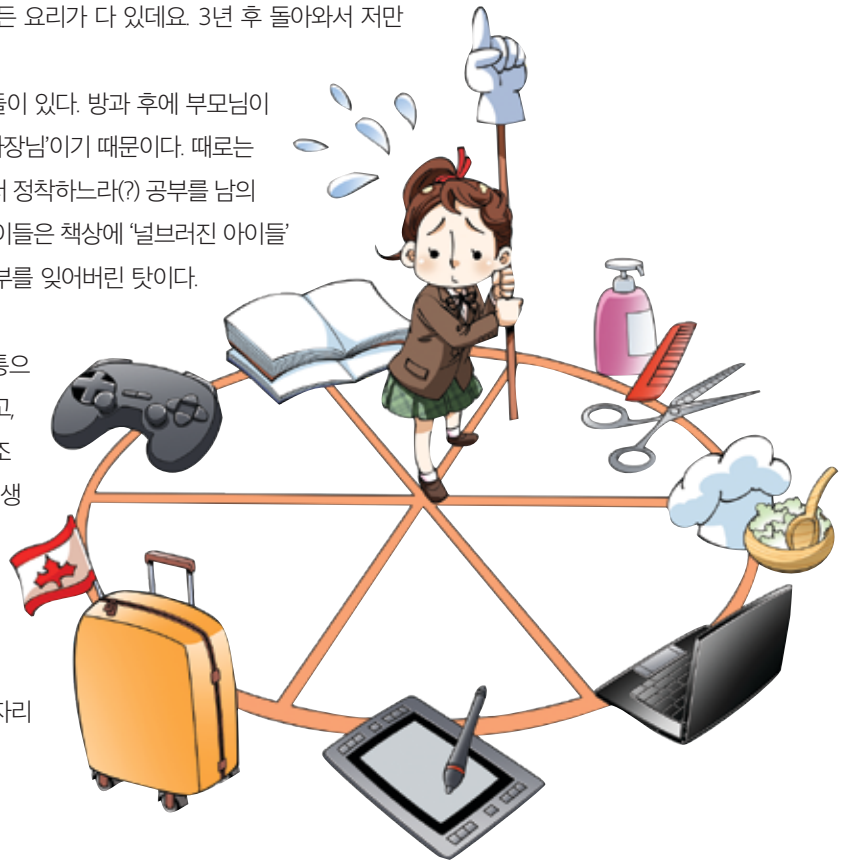
아이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어느 계통으로 나아갈지 많은 탐색 끝에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대조한 끝에 진학을 결정한다. 이때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한다.

에서 외국어, 음악, 미술, 애니메이션, 연극, 운동을 전공하는 아이들이다. 예전엔 대학이기가 좀 수월했지만, 요즘은 이쪽도 붐비고 입시에 실패하면 달리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위험부담이 높다.

또는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호사업, BJ, 게임, 만화, 요리, 자동차나 항공기 정비, 전기, 기계, 건축, 모델, 미용을 배워서 직업전선에 곧바로 뛰어드는 아이들도 있다. 어떤 아이가 말했다.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심부름을 해주고 저녁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리를 배우고 신문을 많이 읽으면 돼요” 다른 아이가 말했다. “전 요리를 배워요. 2년 되었어요. 졸업하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요리를 더 배울 거예요 거긴 국제도시고 세계의 모든 요리가 다 있네요. 3년 후 돌아와서 저만의 아이টে็ม으로 식당을 차릴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부가 좀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다. 방과 후에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들어 드리는 ‘부사장님’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유흥가에서 그쪽 계통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착하느라(?) 공부를 남의 물건 보듯 하는 아이들도 있다. 가장 슬픈 아이들은 책상에 ‘널브러진 아이들’이다. 심한 경쟁에 지쳐서 도중에 잠들어 공부를 잊어버린 탓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어느 계통으로 나아갈지 많은 탐색 끝에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대조한 끝에 진학을 결정한다. 이때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학교 안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할 일이다. 그럼 학교 밖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쳐다볼 하늘이 너무 좁아서 당황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⑤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Q 저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제가 중등학교 영어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께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관련 [별표2]에 따라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 50학점 이상과 교직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상 72학점 이상을 이수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학점을 입학 전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에서 이수한 영어 전공 관련 학점을 인정(세부과목별 인정여부는 진학하실 대학원에 반드시 확인 필요)받을 가능성이 높고 교직과목과 추가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이수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원복지연수과]

Q 초6, 중3, 고3학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마감을 일찍 하여 12월~1월의 봉사실적이 학적부에 반영되지 않고 졸업 이후 진학 학교 입학 전까지는 봉사실적을 학적부에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학생의 학기 중 교육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당해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마감을 조기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마감을 해제하고 봉사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 이후부터 2월 28일까지의 봉사활동 실적도 당해학년도 봉사실적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 한 사정으로 당해학년도에 봉사실적을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정정 절차를 거치면, 졸업 후에도 봉사실적을 입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수학습평가지원팀]

Q 초·중·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교육기자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복잡한 계산 수행,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문제해결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교육과정 유의 사항에 부합하는 활동에서는 계산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토대로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에 필요한 경우 공학적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

[교육과정정책과]

명예기자 리포트



교직원,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학교 내 과일 섭취 독려 프로그램

최근 어린이들의 과체중, 비만 등에 관심이 부쩍 커진 유럽에서는 아동의 과일 섭취를 독려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한 'EU School Fruit'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바헤닝언(Wageningen) 대학교 연구소에 따르면, 충분한 채소 및 과일 섭취를 하는 어린이는 각각 1%, 5%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하루 권장 섭취량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유럽연합(EU)의 후원과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교 연구소 주관으로 채소 및 과일 섭취 독려를 위한 수업 자료가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유익한 자료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신청한 학교 중에서 추첨을 통해 20주 동안 매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 나중에 발생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박소영 명예기자(네덜란드 거주)

우리가 꿈꾸는 급식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칠판 한켠에 오늘의 급식 메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이 전달되어

칠판을 지울 때 그 부분은 지우지 않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곡고등학교 급식실은 아이들을 설레게 합니다. 태국·스페인·멕시코·프랑스·미국 음식 등 세계 나라의 음식 특집,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도 등 팔도 음식 특집 등 다양한 급식 메뉴,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선택 식단(돈까스, 치킨까스/ 잔치국수, 김치말이국수 등), 사연을 공모한 ‘축하의 날’에는 그 학급만을 위한 특별한 축하 급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번 추석 음식까지! 맛있는 음식을 기획하고 만들어주시는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_ 강병희 명예기자(발곡고 교사)

청소년 꿈의 문화터전, 도솔 청소년 문화의 집



대전 서구에는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도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바로 그곳인데

요, 이곳은 2003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사실, 도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란 명칭이 이름에 들어가 있지만, 초등학교생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멀티인터넷공간, N세대버룩시장, 음악활동실, 포켓볼실 등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의 다목적실에서는 <똑똑똑 나무아트>라는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지도하는 선생님, 청소년들이 각각의 아트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열정과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실비나 물품비를 제외하고 거의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청소년들이 더 크고 다양한 꿈을 꾸는데 큰 힘이 되겠지요.

글_ 손성섭 명예기자(충북대 교직원)

꿈을 키우는 2017 강원진로박람회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강원도교육청 주최로 2017 진로박람회가 동해월빙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되었다. 초4~중3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

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행사장에는 꿈씨앗관, 꿈톡움관, 꿈키움관, 꿈나래관 등 주제별로 4개 부스가 설치되었다. 꿈씨앗관에서는 진로적성검사 해석 및 체험, 진로멘토 1:1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꿈톡움관에서는 강원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태양광에너지 체험, 패션디자이너 되어보기, 창의로봇 소프트웨어(SW)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꿈키움관은 지역사 회체험관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었다. 꿈나래관에서는 진로활동 공연 및 진로토크콘서트가 진행되어 박람회의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글_ 홍정은 명예기자(강원도교육청 대학입시지원관)

“고구마 캐기 체험으로 농부의 마음 느껴요!”



경북 성주 수륜면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제4회 메뚜기잡이 체험 축제를 열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황금 들

녘 메뚜기잡이, 고구마 캐기, 땅콩 캐기 등 도시 생활에서 보거나 할 수 없는 체험 활동을 했다.

대구 동성초 4학년 강윤 군은 메뚜기잡이 체험을 처음 해보았다. 또한, 고구마 캐기 활동에 농부가 된 마음으로 임했다. 강 군은 “농부들은 일 년 내내 이 일을 한다고 하니 농부의 고생과 어려움을 조금 알 것 같다.”고 하였다. 대구 동성초 2년 박서연 양은 “땅콩 캐기 체험을 하였다. 자연 들판에 오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작은 체험이 학생들에게는 꿈이 될 수 있고 삶의 밑그림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었다.

글_ 김영근 명예기자(퇴임교원)

상상의 미래를 향한 비행, 2017 경북과학축전



경상북도는 경주시와 함께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북 경주시 보문 하이코 일원에서 제17회 경북과학축전을 개최했다.

이번 과학축전은 '푸른 나비의 꿈, 상상의 미래를 향한 비행'이라는 주제로 도내 첨단 R&D기관과 초·중·고교 과학 동아리들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0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경상북도만의 고유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올해 17회 과학축전은 추석 황금연휴와 맞물려 예상 보다 많은 인파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중심으로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화폐 등 첨단 과학체험을 주로 구성하였고, 과학공연(사이언스 뮤지컬 '허풍선이 과학쇼', 3D입체영화 '엄마까투리' 외 사이언스 매직쇼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중심으로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화폐 등 첨단 과학체험을 주로 구성하였고, 과학공연(사이언스 뮤지컬 '허풍선이 과학쇼', 3D입체영화 '엄마까투리' 외 사이언스 매직쇼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글_ 김동현 명예기자(포항공과대 연구원)

하나되는 '대한민국어울림축전'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장애,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통해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진로직업관, 특수교육관, 창의융합관, 장애인식개선관, 특별관 등 100여 개의 부스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특수교육을 탐방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이번 축전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안정실, 체험 우선 배려석, 휠체어 배려존 등이 운영되어 모두가 불편함 없이 체험할 수 있었다.

글_ 김민규 명예기자(제천청암학교 교사)

성남교육지원청, 가족원정대 나눔놀이터 개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10월 14일 중앙공원 중앙광장에서 성남지역 연탄나눔 활동을 위해 '나눔더하기 가족원정대 - 나눔놀이터'를 개최했다.

'나눔더하기 가족원정대'는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인성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의 공동프로그램으로 총 30개교 142가정(5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발대식 이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및 국수나눔, 복지시설 일손 돕기 및 말벗되어 드리기, 지역소찰 안전 활동, 인식개선 캠페인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가족원정대 나눔놀이터'에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임미션, 사진미션을 통한 가족 유대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과 함께 가족들의 기부로 만들어지는 미니 프리마켓, 동전모금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가족원정대 나눔놀이터'에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임미션, 사진미션을 통한 가족 유대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과 함께 가족들의 기부로 만들어지는 미니 프리마켓, 동전모금활동이 진행됐다.

글_ 강호섭 명예기자(보정초 교직원)

이웃사랑 물결 '빛고을 나눔장터'



10월 14일 광주광역시 청야외음악당에서는 '제14회 빛고을 나눔 장터'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장터에는 약 300

팀, 70여 명이 일일 사장으로 참여해 베품시장을 열어 물건 재사용에 대한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이날 가장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명사 경매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기증한 정장·코트는 각각 96만 원·60만 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낙찰자들은 청와대에 방문할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장터 곳곳에서는 남광주시장 청년상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체험존, 페이스페인팅 등과 전통놀이체험, 캐릭터그리기 등 체험부스가 마련돼 아이들과 장터를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역 단체의 재능기부와 봉사가 함께한 광주 최대 베품장터가 공유와 나눔의 축제로 자리매김되길 바라봅니다.

글_ 박현숙 명예기자(울곡초 사서)

통일교육 현장 포착!

달려라 통일열차!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제1회 「울곡 통일리더스쿨」 153명 출정단이 지난 달 14일 목포역에서 1500리 국토횡단 통일열차에 탑승했다. 목포에서 용산, 청량리를 경유해 정동진으로 향하는 이번 국토 대장정은 시련 극복과 자기 성찰로 통일 한반도의 꿈을 찾아가는 '희망 스쿨'의 첫 출발이 됐다. 지난 9월 사전 교육시간에서 함께 읽었던 '울곡 이이'에 대해 새롭게 만난 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어 이날 오후에는 강릉 통일공원을 방문해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 싹 틔우기 활동을 진행했다.
글_ 신현태 명예기자(노화초 교사)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남북 어울림 통일 축제'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는 '2017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남북 어울림 통일 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청이 주최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와 삼죽초등학교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축제에서는 통일놀이 체험, 남북 음식체험 부스 등을 비롯해 200초 통일강연 스피치, 통일연극과 태권무 공연, 통일 비행기 날리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2007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매년 개최되면서 통일을 향한 공감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글_ 최병권 명예기자(하나둘학교 교사)

평화의 섬 걷기로 통일교육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달 21일 열린 '접경 지역 평화의 섬 교동도 길 걷기' 행사에는 각지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해 교동 해안가를 비롯한 둘레길을 걸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주최하고 경인일보,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날 걷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통일이 돼 교동에서 불과 3.2km 거리에 있는 북한 황해도 연안군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교동대교를 출발해 월선포를 지나 해안제방길, 교동읍성, 남산포를 거쳐 대룡시장까지 약 8.4km(2~3시간 코스)를 걸으며 교동의 가을 정취를 느꼈다. 26명이 참여한 신명여고 학생들은 "책으로만 배우던 통일교육을 이렇게 현장에 와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뜻깊다."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글_ 김은성 명예기자(신명여고 교사)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미래 한국을 책임진다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강화된 역량으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연수원에서 학생, 학부모 등이 모인 가운데 서부드림스쿨 종강식을 갖고 수업을 수료한 220명의 중학생에게 이수증을 수여하였다. 서부드림스쿨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창의융합된 교과 수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리더십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관내 6개 거점학교와 교육연수원 등에 마련된 캠프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글_ 신재일 명예기자(학부모)

60여 년만에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



경복궁과 함께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궁궐인 덕수궁과 서울 정동길로 이어지는 덕수궁 돌담길. 지난 8월 30일, 1958년부터 덕수궁 북쪽에 위치한 영국대사관의 높은 철문으로 막혀있던 영국대사관 후문과 덕수궁 사이 약 100m 정도의 경계 구간이 60여년 만에 개방되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개방 전·후 등을 설명해 놓은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근·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서울의 옛 모습들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작년에 철거한 성공회 서울 대성당 앞 옛 일제의 체신건물이었던 국세청 별관건물 자리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되고, 그 주변의 영국대사관 부지의 덕수궁 돌담길도 개방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는 정동길과 덕수궁 돌담길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볼 날을 기대해 봅니다.

글_ 김경민 명예기자(학부모)

은평 한옥마을 내 '셋이서 문학관'



'셋이서 문학관'은 서울 북한산 자락 은평 한옥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유명한 고찰 진관사, 삼천사가 있으며, 역사한옥박물관과 한옥마을 등이 있어 고풍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문학관의 명칭은 1989년 문인 세 명의 시와 그림을 담은 시화집 '도착록 셋이서'에서 유래한다. 이 문인들은 세간에서 기인(奇人)으로 불리우며 독특한 색깔의 문한(文翰)세계를 펼쳤다. 문학관 내에는 시인 천상병(1930~1993), 시인 중광수님(1934~2002), 소설가 이외수(1946~)의 작품이나 유품이 각방에 담겨 있다. 인상 깊은 것은 꽤 오래되어 색깔이 바랜 원고지에 천상병, 이외수 두 문인의 친필의 흔적이 전시되어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게 한다.

글_ 이재찬 명예기자(특공무술인)

사회이슈 토론 자율동아리 '장기아고라'



김포 장기고등학교 교실 한편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올해 초 결성된 자율동아리 '장기아고라' 멤버 9명이 그 주인공이다.

장기아고라는 학교 내에서의 정규 토론 활동뿐만 아니라 김포청소년육성재단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맺어준 지역사회 멘토와 함께 올 한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지난 8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진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김포시 슬로건을 알리는 등 김포청소년의 시민참여 의식을 톡톡히 보여준 바 있다. 앞으로 소논문 작성에도 도전한다는 장기아고라 학생들. 조성훈 김포시진로체험지원센터장은 "김포는 작년부터 동아리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50개 자율동아리에 전문가 멘토 각 1명을 매칭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_ 이희 명예기자(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소장)

창덕여중의 체인지메이커, 건강동아리



지난 10월 13일부터 이틀간 근대 문화유산 일번지인 서울 정동에서 '담배 연기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창덕여중(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서울미래학교' 연구학교) 보건복지반 학생들의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창덕여중 학생들은 건강동아리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견하여 그 요소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흡연예방 안전지도 만들기(SNSM: Seoul No Smoking-safe Map)로 동네의 흡연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교내외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도 펼쳤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창덕여중의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 보건복지반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요**

글_ 천아영 명예기자(원종초 보건교사)

수능 15일 마지막 준비 전략

11월 16일(목)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을 지원했다면 2~3개 영역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 자신 있는 영역에 공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반면, 정시모집에 집중하는 학생은 4개 영역을 골고루 잘 봐 총점을 올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새로운 교재를 풀거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등 학습 습관을 바꾸거나 평소보다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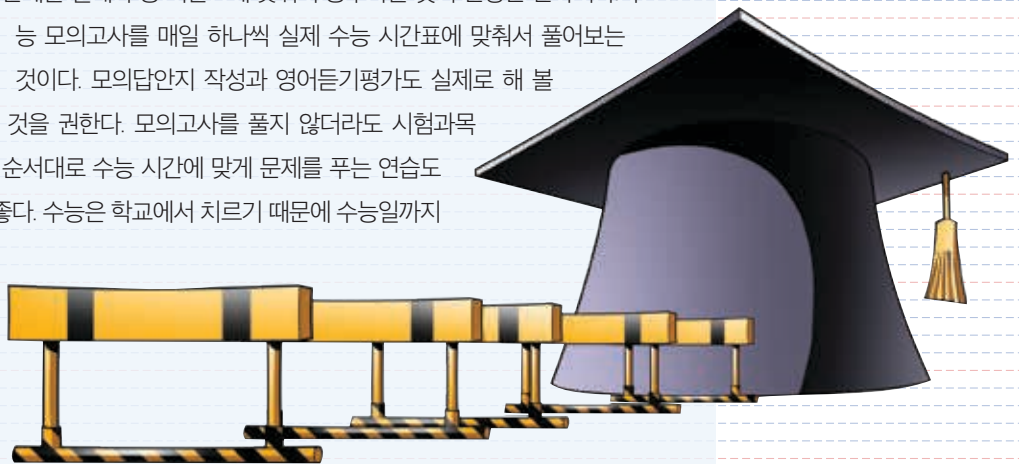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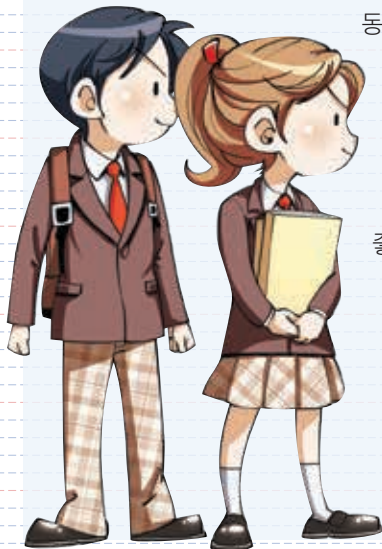
6·9 모의고사 다시 풀면서 출제의도 파악을

먼저 지난해 수능 기출문제와 6월, 9월 모의평가를 다시 한 번 풀면서 출제자의 의도, 출제 방향, 난이도, 유형 등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6월, 9월 모의평가는 올 수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매일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신유형 문제는 반드시 점검하고 숙지해야 한다. 수능이 보름 밖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최상의 교재는 기출문제라는 것을 꼭 명심하자.

수능 연계 출제의 근거가 되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교재도 틀린 문제 중심으로 반복해 풀어서 부족한 개념을 확인하고 다듬어야 한다. 연계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방송은 듣지 않았더라도 교재는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꼼꼼히 풀어보고 지문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오답 노트를 확인하고 취약단원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수능은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하여 5교시가 17시 40분에 끝나는 시험이다. 남은 15일

동안에는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수능 모의고사를 매일 하나씩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풀어보는 것이다. 모의답안지 작성과 영어듣기평가도 실제로 해 볼 것을 권한다. 모의고사를 풀지 않더라도 시험과목 순서대로 수능 시간에 맞게 문제를 푸는 연습도 좋다. 수능은 학교에서 치르기 때문에 수능일까지



수능 보름 전 과육은 금물이다. 시험 당일까지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고 맞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는 학원을 줄이고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시험장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능을 못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수시모집이지만 서강대 일반형, 가천대 가천바람개비전형, 강남대 학생부교과(추천형) 등 수능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대학도 있다. 전문대 수시 2차 원서접수가 11월 7일(화)에서 11월 21일(화)까지인 것도 참고하자. 재수나 반수를 할 수 없다면 정시모집 이후 추가모집에도 도전부터 해야 한다.

수능 이후 논술·적성·면접·실기를 치르는 수험생은 수능과 함께 대학별고사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렇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기출문제는 반드시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필수다. 성균관대처럼 수능을 치른 그 주 토요일부터 바로 대학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준비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논술의 경우 하루에 모의논술 한 회분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풀고, Rewriting까지 해볼 것을 권한다. 면접의 경우는 모의면접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수능 이후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출하는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출기한에 유의하자.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 관리가 중요

수능 보름 전 과육은 금물이다. 시험 당일까지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수능 시험은 학교 내 신 시험과 달라서 벼락치기를 해도 갑자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수능은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 공부효과는 적은 편이다.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공부량을 늘리면 오히려 신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컨디션 관리 방법은 자신의 평소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고 맞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수능 고사장 입실 시간이 8시 10분이므로 6시 정도 기상하여 늦어도 자정에는 자는 것이 좋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이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강관리에 우선순위를 뒤편해야 한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휴식도 도움이 된다. 긴장감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설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잘 먹고 잘 자야 수능도 잘 볼 수 있다. 1교시 수능 국어가 시작하는 8시 40분 이후부터 내 몸과 뇌가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생체 리듬을 조절해야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수능 시험 당일까지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건강관리가 당락을 좌우한다.

끝으로, 수능이 목적인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격려 한마디.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수능을 치르세요.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설령 수능 성적이 나빠도 지나치게 실망하지는 마세요. 수능이 인생의 결승점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노력하는 모든 인생은 훌륭합니다.” 

우리 아이 이중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는 착한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답니다. 아이가 친구하고 크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을 찾아뵈어 어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다재능한 아이이지만 친구들과는 작은 의견 충돌을 일으키곤 해서 사이도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는 아들은 그런 아이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위로 누나 셋의 늦둥이 막내아들로 태어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인데다가 행여나 오나오나 키워서 버릇이 없어질까 싶어 더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다 하였습니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 정말 단정한 용모에 영특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수업 내용은 평이하고 쉬워서 좀 재미없는 것 말고는 다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지 묻자, 반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놀 때, 무엇을 하고 놀지, 모둠활동 시간 때 역할을 나누는 일 등 주로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누나들이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지 물었습니다. 의외로 “집에서도 누나들이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줘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왜 화를 안내느냐고 묻자 “엄마, 아빠도 다 누나들 편이고, 누나들이 나보다 힘도 세고 나이도 훨씬 많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 마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억눌려 있던 불만과 욕구를 학교에 와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큰 누나들에게는 포기해야 했던 경쟁을 또래들에게 하려고 하였고, 누나들에게는 졌지만 또래에게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작은 것 가지고도 경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때를 쓰거나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유형

이 아이처럼, 집에서와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까요? 이중생활의 유형별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말과 학교에서 쓰는 말, 즉 언어생활이 아주 다릅니다. 이를 두고 초등학교 3학년 만 되면 아이들이 2개 국어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끼리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틀에서 벗어난 언어구사를 통하여 자유와 독립심을 맛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욕설과 은어도 이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욕설을 대하는 기본 원칙은 욕설이 잘못된 언어습관이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자유로운 일탈에 대한 매력이 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는 사실 집안에

아이가 뜻밖의 일탈 행동을 밖에서 한다면 집안에서 아이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이가 가족들과 지내면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는 말도 많이 하고 활발한데 밖에만 나가면 꿀 먹은 벼어리처럼 뒤로 숨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친구 사귀는 데에도 오래 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편안해지면 스스로 잘 어울립니다. 이것은 아이의 부끄러움이 크거나 조심성이 큰, 겁이 많은 아이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방식입니다. 이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이의 기질을 이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내 녀석이 그래서

어쩔래?”, “넌 다른 사람 민망하게 그게 뭐하는 짓이니?”와 같은 말은 이 아이들을 더욱 위축되게 합니다. 편안한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필요해지면, 또는 편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낮은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아이의 어머니들 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미혼일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 낳고 제가 좀 바뀌었어요. 외향적으로요.”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집안에서는 너무 얌전하고 공손한데 밖에서 뜻하지 않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유형이지요. 부모님이 가장 당황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좌절감, 소외감, 무력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뜻밖의 일탈 행동을 밖에서 한다면 집안에서 아이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이가 가족들과 지내면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차라리 안에서 새는 게 밖에서는 새지 않게 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처럼 너무 많은 제재와 간섭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밖에서 ‘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맘충’, ‘노키즈존’의 논쟁 속에서 아이에게 규율과 배려를 가르치지 않는 풍토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듯이, 아이의 작은 실수나 행동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고쳐 나가려는 태도는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

학생독립운동의 날 이야기

글. 강응천 역사저술가(문사철 대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시절, 중등교육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다.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야 했다. 따라서 그 시절 이 땅의 대다수 청소년은 중등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고보(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고등보통학교의 졸업말)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교육에서 민족적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청소년들과는 고민하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고보에 다니던 청소년들은 많은 책을 읽으며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차별을 받게 되었는지 고민했고,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토론했다. 광주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성진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 민족적 차별을 낳는 제국주의의 모순에 대해 깊이 있는 이론적 공부도 하고 동맹 휴학을 일으키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바로 그러한 고민과 저항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다.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

사건의 발단은 그해 10월 30일에 있었던 한국인 고보생과 일본인 중학생 간의 충돌이었다. 당시에는 나주에서 열차를 타고 광주에 있는 중학교나 고보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날 광주중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 후쿠다 슈조가 광주여자고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기옥을 비롯한 한국인 여학생들의 땀기끼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했다. 개찰구를 나오던 박기옥의 사촌 동생 박준채(광주고보 2학년)는 분을 참지 못하고 후쿠다 슈조와 싸움을 벌였다. 이 싸움은 나주역전에서 광주고보생들과 광주중학생들의 패싸움으로 확대되었다. 사태를 진압하러 달려온 일본인 순경들은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 편을 들고 박준채를 구타했다. 다음 날 이 사건을 보도한 일본인 신문 <광주일보>도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 편을 들





1929년 연말 전국을 들끓게 한 학생독립운동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당시 우리의 10대들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잘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그들에게 교육의 문제는 곧 민족의 문제였다.

면서 한국인 학생들을 폭도로 매도했다.

광주고보생을 비롯한 광주의 한국인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해 11월 3일은 일본 메이지 천황의 생일인 명치절(明治節)로 일제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다. 공교롭게도 음력으로는 10월 3일이라서 한국인에게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개국한 개천절이었다. 또한, 광주 지역 학생들의 비밀 결사인 성진회의 창립 3주년이기도 했다. 광주고보생들은 명치절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나주역 사건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광주일보사로 물려가 윤전기에 모래를 뿌렸다. 또 다른 광주고보생들은 신사 참배를 마치고 돌아 오던 광주중학생들과 광주천에서 맞닥뜨려 광주역까지 추격전을 벌였다. 일본인 학생들이 얻어맞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중학생 수백 명이 목검을 들고 광주역으로 밀어닥치자 한국인 학생들은 광주고보생과 광주농교생이 힘을 합쳐 맞섰다. 이 싸움에서 한국인 학생 아홉 명, 일본인 학생 스물여섯 명이 부상을 당했다.

광주일보사를 습격한 광주고보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광주역에서 패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면적인 가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약 300명의 학생이 목봉, 삽, 곡괭이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 “식민지 교육 철폐!” 등을 외쳤다. 이런 구호는 단순히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던 10년 전의 삼일운동 때와는 달라진 것으로, 학생들이 식민 치하의 민족 모순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 때마침 광주에서는 ‘전남 누에고치 600만 석 돌파 축하회’가 열려 각지에서 많은 농민이 올라와 있었다. 광주 시민과 이들 농민이 학생들의 시위에 합세하면서 시위대는 한때 3,000명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제국의 명절에 한국인의 독립 운동이 일어나자 당황한 일제는 광주 시내 모든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 75명과 일본인 학생 7명을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 한국인 학생 62명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고 일본인 학생은 전원 석방되었다. 이 같은 일제 당국의 편파적 대응은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그해 11월 12일 학생들은 제2차 봉기를 일으켜 광주형무소를 포위하고 ‘구속자 석방’을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는 400명 가량의 학생이 구속되고 약 70명에게 체형이 선고되었다.

광주의 학생 운동은 엄격한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신간회라는 통일전선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었다. 신간회는 허헌, 김병로 등 유력 인사들을 광주에 내려 보내 진상을 조사하고, 독립 만세 운동을 전국에서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에 앞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중등 학생들은 광주 학생들에 호응해 시위와 동맹 파업을 벌여 나갔다.

1929년 연말 전국을 들끓게 한 학생독립운동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당시 우리의 10대들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잘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그들에게 교육의 문제는 곧 민족의 문제였다. 어찌 보면 오늘날 10대가 대부분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시절의 청소년들이 고뇌하고 싸운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10대가 겪어야 하는 살벌한 입시 경쟁은 결코 그분들이 바라지 않던 것이리라. 민족 차별이 곧 교육 차별로 이어져 분노하고 봉기했던 선배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민족 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교육 제도는 우리 시대 모든 이가 함께 고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⑤

“우리 동아리만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단위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지역사회가 연계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만 아는 비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실>

동아리 활동이 학교나 지역축제 및 공연에 참가하는 등 지역 연계적으로 운영하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가끔적이면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한다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과학 동아리인 화생방(화학과 생명의 방갈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교육봉사(과학실험)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각자 역할을 부여해주니까 책임감도 들고 초등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 참 좋습니다.

조예찬 학생



신입생 입학식에 관악반 선배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연주가 들립니다. 하모니의 매력에 이끌려 관악반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눈높이에 맞춰 관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후배 간에 관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끈끈한 화합과 열정이 넘치는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 모두 함께 연습합니다. 교내 학교행사와 문화예술행복학교, 어울림한마당 등 외부초청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수 교사

저는 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중인데, 선후배간 멘토-멘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선후배가 한명씩 짝을 지어 생인도 챙기고, 시험기간에는 쪽지강 간식도 서로 챙기고, 악기연주 노하우도 전수해 주는데요, 모든 동아리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여 동아리 시간이 항상 즐겁고 기다려져요.

최해성 학생



수리수리마수리 열! 저희 마술반 동아리는 교사와 학생 구분 없이 365일 마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과 함께 마술생각뿐입니다. 기초, 초급, 중급 마술 단계로 나누어 관심 있는 마술을 직접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며, 생활 속 마술을 함께 연구하기도 합니다. 학교 축제 기간에 학생들과 지도교사와 함께 신기하고 웃음 가득한 수리수리마수리 마술공연을 펼칩니다.

김인희 교사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한울’ 동아리는 온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명도 짓고 후배들도 뽑습니다. 학교전담 경찰관과 연계하여 한 달에 한 번 우리 마을을 순회하며, 우리 마을 지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아침 일찍 등교하여 일주일에 두 번 교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 교사

요즘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다. ‘쉐프학교’를 운영하여 식재료이론, 영양소 및 기능을 알아보고 레시피를 작성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면서 요리사라는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김미경 영양사



‘앙트’ 동아리는 사회적 경제와 기업이 정신을 배우는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계획하고 활동합니다. 올해 저희 동아리는 ‘학교 협동조합 모델에 기반한 매

점 설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설문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교류도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활기가 넘칩니다. 동아리 활동 시간 이외에도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박광원 교사

우쿨렐레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동아리를 운영, 이론교육과 실습을 해오고 있다. 이를 선순환시켜 학부모의 재능기부로 고학년들에게 우쿨렐레를 가르치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축제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하기도 한다. 동아리경연대회에도 출전하여 수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우쿨렐레 하나로 학부모와 학생의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현희 교사

텃밭동아리를 결성하여 텃밭을 일구고 풋말도 만들고 아채특성을 알아본다. 시기에 맞춰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배추, 감자, 당근, 오이, 가지, 토마토, 고추, 상추, 깻잎, 고구마 등 아채를 돌보며 생태관찰을 한다. 감자, 고구마는 수확하여 급식으로도 활용한다. 텃밭동아리는 땅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이다.

이건진 교사

자율적이고 활기찬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소속감 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 상징물을 중요하게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아리만의 티셔츠, 로고, 슬로건, 배지 등을 학생들과 함께 제작합니다. 이런 상징물은 같은 동아리 학생들에게 일체감을 주고, 단합하게 해줍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구호와 의식도 있습니다. 신입 동아리원들은 처음 동아리에 들어올 때, 모두 함께 목욕탕에 가서 서로 등을 밀어줘야 하고 동아리 활동 전 반드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이런 전통과 문화는 아이들에게 착상시킬 가장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현우 교사

저희 어린이집에는 학생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와요. 예전에는 봉사동아리에서만 와서 일손을 거든거나 아이들과 놀아주었는데, 요즘은 합창 동아리, 연극 동아리, 미술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에서 와서 봉사를 해줘요. 저는 학생들이 함께 재능을 나누고 봉사를 통해 관계가 돈독해지고 바른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동아리 운영의 종착점은 봉사를 통한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이중순 어린이집 원장

신목중학교에서 재직 5년차 때 스킨스쿠버다이빙 동아리를 지도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에너지를 실컷 발산할 수 있는 흥미롭고 이색적인 스포츠 동아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교육에 가장 힘썼고 기초훈련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스킨스쿠버다이빙 초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뿌듯해하던 학생들의 해맑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경진 교사

최근 많은 동아리들이 ‘연합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간 같은 성격을 띤 동아리 연합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더 시야를 넓혀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동아리 활동인 것 같아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활기찬 동아리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최준홍 예술 강사



경제 이론을 배우고 직접 시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경제적 원리를 배우고 시장 물가를 분석하면서 합

리적인 소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용경제연구반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도 하고 시장 물가 분석도 하고! 공부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양지훈 교사



2018 동계올림픽, 가자! 강원도로 ②



정선 편

여기 다 있다, 당신이 즐겨야 할 만추



바람이 향긋해 기분 좋은 만추엔 정선엘 가자. 정선의 11월은 황금빛이다. 만항재 낙엽송숲이 황금빛으로 출렁대고, 민둥산 너른 억새밭이 또 황금빛으로 물결친다. 철로 위를 질주하는 레일바이크와 고공 위로 아찔하게 뻗어 있는 스카이워크도 매력 만점 즐길 거리. 아리랑 선율이 흐르는 5일장과 폐광의 흔적도 정선이 주는 선물이다. 여기에 올림픽경기가 펼쳐질 알파인스키장까지 엿본다면 금상첨화. 산촌 고유의 정서가 잘 살아 있는 정선으로 떠나보자.

알파인스키 경기가 치러질 도시, 정선

2018 동계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102개. 각 종목의 주인공이 평창, 강릉, 정선에 있는 12개 경기장에서 결정된다.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치러지는 곳은 스키장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전체 금메달의 절반 가량인 50개가 스키 종목에 걸려 있다. 올림픽 종목인 알파인스키, 패럴림픽 종목인 장애인 알파인스키, 장애인 스노보드 경기가 열린다. 장애인 알파인스키 종목 일부도 정선에서 진행된다. 아직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장 일대를 잠깐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설렘이 있다. 특히 가리왕산 기슭에 있는 정선 경기장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신설돼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더욱이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자



소문난 역사 군락지 민동산

선수와 여자선수가 같은 코스를 사용하도록 디자인했다.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물 군락지 7개를 우회해 코스를 설계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재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미리 경기장을 살펴보는 재미를 맛보고 싶다면 찾아볼 일이다.

1 Day

하루쯤은 바람 따라 너풀너풀

첫날은 민동산과 만항재로 길을 잡자. 민동산은 소문난 역사 군락지다. 가을이면 산 정상이나 나무 하나 보이지 않는 황금빛으로 빛나 눈부시다. 특히 산 정상에서 동남 쪽으로 이어지는 역사능선이 각별하다. 숨씨 좋은 이발사가 만들어 낸 듯 아름다운 가르마가 역사 숲을 가로 질러 산책하는 맛이 좋다. 걷다 만나는 소리도 매력 있다. '사각 사각, 쉬~쉬', 바람이 불 때마다 역사를 휘감아 흐르는 소리가 풍성하게 들린다. 풍경은 가끔 그렇게 눈뿐 아니라 귀로도 마음을 적셔 황홀하다. 감상 적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10일 즈음까지. 산행 시간은 짧게는 40분, 길게는 2시간이다. 발구덕마을까지 차로 올라 산행을 시작하면 30~40분 만에 정상에 닿고, 증산초등학교나 능전마을에서 시작하면 정상까지 1시간 30분가량이 걸린다. 오르막구간의 경사가 만만찮지만 길이 험하지 않아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산행지로도 인기다.

민동산을 벗어나 태백 방향으로 12km 정도를 달리면 만항재 입구에 닿는다. 만항재는 고원 드라이브 코스의 정수로 손꼽히는 곳. 고갯마루의 높이가 무려 1,330m에 달해 우리나라에서 포장 도로가 놓인 고개 가운데 가장 높다. 출발점은 정선군 고한읍, 38번 국도와 414번 지방도가 갈리는 상갈래교차로다. 이곳에서 삼탄아트마인과 정암사를 지나 만항재 정상까지 8km 남짓을 달린다.

초입에 있는 삼탄아트마인부터 찾자. 상갈래교차로에서 2km 거리쯤에 있는 삼탄아트마인은 2001년 폐광된 삼척탄좌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 곳이다. 20여 년 전까지 만항재가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곳으로, 길목에서 산중턱에 우뚝 솟은 수갱타워가 보인다. 수갱타워는 지상과 지하 갱도로 광부와 석탄을 옮기던 삼척탄좌의 승강 시설로, 아트마인의 심장 같은 곳이다. 짙은 회색빛 레일 위에 붉은 꽃 세 송이를 상징처럼 설치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밖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을 촬영했던 마인갤러리와 석탄 산업의 현장인 야외 공간도 눈에 띈다. 광차와 인차 등을 전시하고 있는 야외 공간에서는 폐탄이 높은 언덕을 이룬 풍경과도 마주할 수 있다. 케케묵은 듯하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광부들의 고단한 삶이 구불구불한 만항재를 따라 이야기로 흐르는 느낌이다.

추천 코스

- 1day 민동산 - 삼탄아트마인 - (점심) - 정암사 - 만항재
- 2day 병방치스카이워크 - 정선아리랑시장 - (점심) - 레일바이크 - 아우라지 - 화암동굴(또는 알파인스키장)



01



02



03

삼탄아트마인 맞은편엔 정암사가 있다. 국내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로 알려진 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장유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찾는 인파가 많지 않은데다 크지 않아 경내가 고요 속에 잠긴 듯 풍경 소리가 크다. 눈여겨볼 곳은 수마노탑이다. 수마노탑은 적멸궁 위 산 중턱 높은 곳에 있는데, 정교한 장식이나 화려한 돌을 새김은 없지만 흰찰하니 잘 생겼다. 탑의 지붕돌 네 귀퉁이마다 달린 풍경들이 바람을 타는 소리가 듣기 좋은 자리다.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경치도 일품이다.

정암사 위는 만항재다. 정상 표지석을 기준으로 사방이 울창한 낙엽송 숲이다. 햇살 좋은 11월 한낮, 낙엽송 숲을 걸어보자. 여름 내 야생화로 물결쳤던 탐방로가 황금빛으로 빛난다. 바람이 불면 와르르 노란 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 01 __ 철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 레일바이크
- 02 __ 폐광된 삼척탄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삼탄아트마인
- 03 __ 아우라지역과 아우라지를 잇는 줄배
- 04 __ 스카이워크에서 즐기는 짚와이어
- 05 __ 정선아리랑시장 공연
- 06 __ 실제 금을 캐던 화암동굴



04

2 Day 정선 고유의 풍경과 마주하다

이튿날엔 정선읍내로 든다. 정선읍내에 있는 병방치를 들러 구절리로 향하는 것이 순서다. 병방치는 동강 물줄기가 한반도 모양 지형을 감싸고 흐르는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정선군은 몇 년 전, 이 고개 절벽 끝에 스카이워크를 만들었다. 아찔한 절벽 끝에 U자형으로 돌출된 구조물을 세우고 바닥에 강화유리를 깔아, 하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 스카이워크에서 언덕 위로 100여m를 오르면 전망대와 짚와이어 시설이 있다. 전망대는 동강이 물돌이를 이루며 산을 감싸고 도는 풍경이 한눈에 드러나는 지점. 이곳에 서면 짚와이어로 고공을 질주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좀 더 액티비티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짚와이어로 한반도 지형 위를 날아보는 것도 괜찮다.

병방치에서 구절리까지는 차로 30~40분이 걸린다. 구절리는 레일바이크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레일바이크는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는 네 바퀴 자전거. 폐역사인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km 구간을 50여 분 달린다. 국내 최장 코스지만 코스 대부분이 평지이거나 내리막길이라 힘들이지 않고 바이크의 속도를 즐길 수 있다. 시속 10~30km로 느린 속도지만 바람을 직접 맞으며 달리는 데다 터널이나 철제다리 등을 쏘살같이 달려 체감속도는 실제보다 훨씬 빠르다. 하지만 철로 위를 달리는 것보다 즐거운 건 철로를 달리며 감상하는 구절리 일대의 빼어난 풍광이다. 철로를 따라 달리는 송천계곡의 여울과 강 양쪽으로 늘어서 기암절벽, 산간농촌의 정겨운 풍경이 상상 이상의 재미를 준다.

구절리에서 정선읍내로 돌아 나오는 길엔 아우라지에 들리는 것도 잊지 말자. 골지천과 송천이 합수해 조양강을 이루는 지점을 뜻하는 아우라지는 남한강 천리 물길을 따라 뗏목을 운반하던 뱃사공들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강 건너 정자 앞에 있는 아우라지 처녀 상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 이곳에 서면 송천과 골지천이 합수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05



06

아우라지역과 아우라지를 잇는 줄배도 타볼 일. 뱃사공이 구수한 사투리로 풀어내는 아리랑 얘기가 그 리듬감만큼이나 재미있다.

마침 정선으로 떠난 날이 끝자리가 2일이나 7일인 날이거나 주말이라면 정선아리랑시장에도 둘러보자. 시골 장터 특유의 소란스러움과 소박함에 아리랑 공연 등 볼거리가 가득해 보는 맛이 난다. 무엇보다 잔주름 깊은 시골 아낙을 닮은 풍경이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준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화암동굴 탐험도 신난다. 화암동굴은 '금(金)과 대자연의 만남'을 주제로 꾸며놓은 테마형 동굴로, 웅장한 지하 세계의 면모를 보여준다.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실제 금을 캐던 곳으로, 관람하는 데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㉔

Travel Tip



정선의 별미는 곤드레나물밥과 콧등치기국수, 울챙이국수, 감자옹심이, 황기족발, 토종닭백숙 등이다. 곤드레나물밥은 정선읍내에 있는 동박골(033-563-2211)과 싸리골식당(033-562-4554), 구절리에 있는 대운식당(033-562-5041) 등이 유명하고, 콧등치기국수와 황기족발은 동광식당(033-563-3100)이 맛으로 알려져 있다. 만항재 부근에 있는 만항곤드레닭집(033-591-5002)도 찾는 이가 많은 곳. 곤드레고등어찜과 토종닭마백숙이 인기다.

NEWS BRIFFING



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자유학기제 수기 및 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 등 3개 분야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을 예정이다.

수기 분야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또는 경험 중인)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UCC 분야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 단체(경험하고 있는 중학생 포함)만 참여 가능하다.

지원 우수 사례 분야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주제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계획 및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12월 29일(금) 자유학기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18년 1월 중 개최 예정인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주최/주관 :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모 기간 : 2017년 11월 1일 (수) ~ 11월 30일 (목)

공모 내용			
주제	분야	참가 대상	시상 규모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수기	중·고등학생 / 교원 / 학부모 (제한된 참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30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27편
	자유학기제 UCC	중학생 단체 (제한 참여 불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지원 기관 및 단체 등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2편

시상 내역은 공모 접수 상황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결과 발표 : 2017년 12월 29일 (금) / 수상자 개별 통보 및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탑재
지세한 공모전 계획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www.ggoomggi.go.kr / www.ggoomgi.go.kr) 참조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국 27개 도시에서 관공과 성찰의 인문학 축제 열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0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을 「제12회 인문주간」으로 선포했다. '인문주간'은 인문학 분야의 주요 연구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전국적인 인문학 축제를 여는 기간으로써, 2006년부터 매년 가을 무렵 한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2회 인문주간」은 '인문학, 관공과 성찰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인문주간 동 전국 27개 인문도시에서 사진 전시, 문화 공연, 인문 유적지 답사 등 230여 개의 다양한 인문학 행사가 개최된다.

대국민 온라인 교육 소통 누리집 '온-교육' 개통



교육부는 대국민 온라인 교육소통 누리집인 '온-교육' (<http://moe.go.kr/onedu.do>)을 지난 10월 23일 개통했다. 교육에 대한 불통을 해소하고자 개설된 '온-교육' 누리집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교육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이다. 온-교육은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소개 △국민 참여 토론방 △어른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C, 모바일 등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 및 단계적 폐지 원칙으로 △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적 폐지 △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 △ 국가장학금 II 유형, 자율협약

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부총리 간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 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 논의 등에 합의했다.

태국 최초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 발간



교육부는 2017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태국 최초의 중등학교용 한국어 교과서 「한국어1 1」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태국 교육부가 한국어를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한 이후 10년만이며, 이로써 태국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의 '해외 초 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과 외교부의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15년 8월부터 태국한국교육원을 통해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결실을 맺게 됐다.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28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과학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과학·수학·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자료 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수학·정보 교과와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부총리,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1일 멘토 참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19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에 1일 멘토로 참여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학창시절의 작은 꿈,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학창시절에 품었던 희망과 꿈, 고민들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도서벽지를 포함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체험기회 격차해소를 위해 '13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 영상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24개 직업군의 멘토 603명이 1,537교를 대상으로 총 3,400회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멘토링 수업 후 멘토가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당해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행복한 교육 웹진에는

- ✓ 정확하고 깊이 있는 **교육정책**
- ✓ 교육철학이 담긴 선생님의 이야기 **'삶과 교육'**
- ✓ 우수학교 탐방기 **'꿈이 영그는 현장'**
- ✓ 수업명사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이런 수업 어때요'**
- ✓ 학급운영의 노하우가 총망라된 **'학급경영 노트'**
- ✓ 새로운 교육이론을 한걸음 먼저 만나는 **'교육논단'**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 구독신청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행복한 교육』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이벤트 01

『행복한 교육』 열혈 독자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열심히 읽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열혈 독자 이벤트에 응모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교육정책이 있으면 3줄 이내로 사연을 올려주세요.

이벤트 02

『행복한 교육』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로 활약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포터즈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을 소개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화면을 캡처해 올려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10월호 이벤트 당첨자

김서현(경기 오산시) 김연순(경북 영양군) 이준임(경기 포천시)
김진호(인천 서원면) 이양례(전남 화순군) 님 축하드립니다.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주명현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기수
 교육연구사 김지선 김지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6242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종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아시아-유럽 교육협력 10년

<http://asemme6.kr>



제6차 ASEM 교육 장관회의

2017.11.21(화) ~ 22(수) / 서울 신라호텔





혁신을 위한 상상력, **교육의 미래를 열다**

2017.11.23.(목)~11.25.(토) | 일산 KINTEX 제1전시장 3, 4홀